

# 세계 불평등, 고용과 실업

ECON151 세계와 한국경제

조남운

# Topics

- 전 세계의 불평등
  - 성장의 근접원인과 근본원인
  - 제도와 경제발전
- 고용과 실업
  - 고용/실업의 측정
  - 노동시장
  - 실업의 종류

왜 전 세계 모두가  
발전하지 못했는가?

# 번영의 근접원인

- 성장모형의 설명요소인 인적자본, 물적자본, 기술이 더 높기 때문
- 하지만 이들 (H/L, K/L, T) 이 왜 높은지는 설명하지 못함

# 번영의 근본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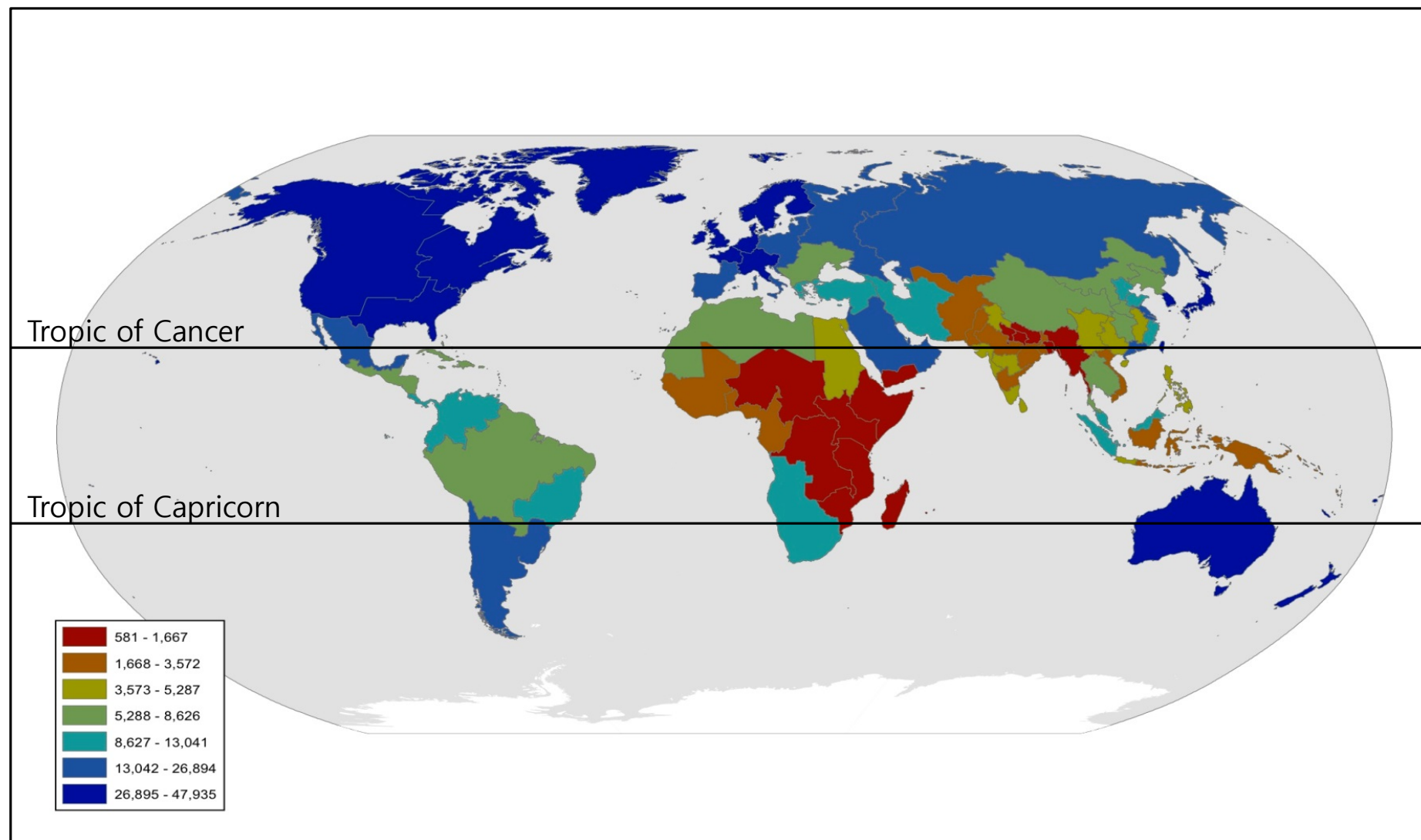
- 왜 애초에 인적자본, 물적자본, 기술이 더 높았는지를 설명하는 요인들
  - 지리가설
  - 문화가설
  - 제도가설

# 근본원인과 근접원인



# 지리가설

- 번영 차이가 지리, 기후, 생태 차이 때문이라는 가설
- 1인당 GDP가 높은 경제들이 온대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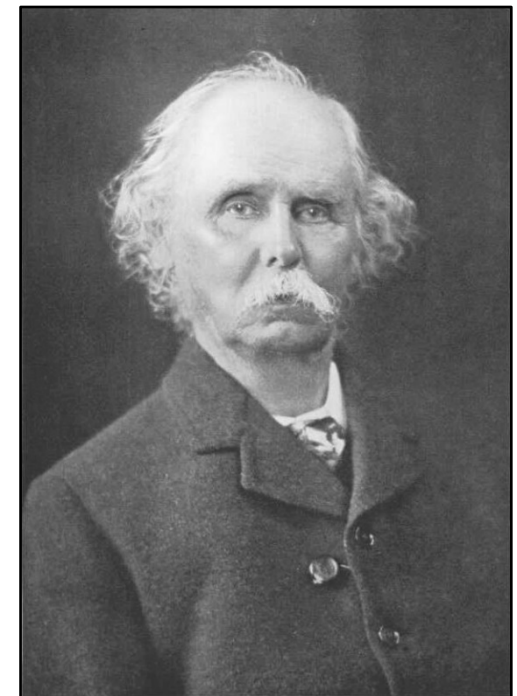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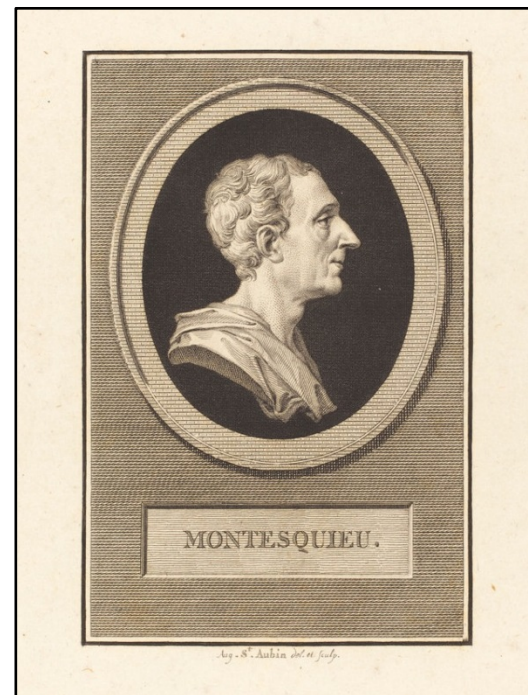


북회귀선

남회귀선

# 몽테스키외, 마셜의 견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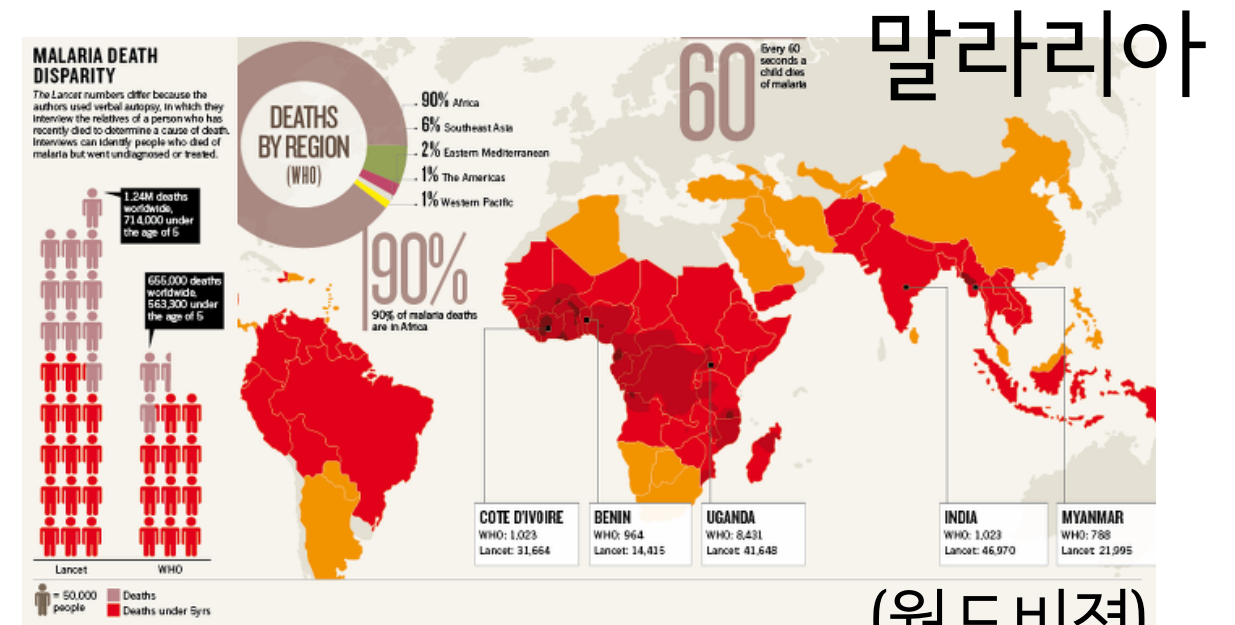
- “열대기후는 근로노력을 감소시킨다”





# 제프리 삭스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견해

- “열대기후가 말라리아와 Dengue 같은 전염병에 더욱 취약해 빈곤을 초래한다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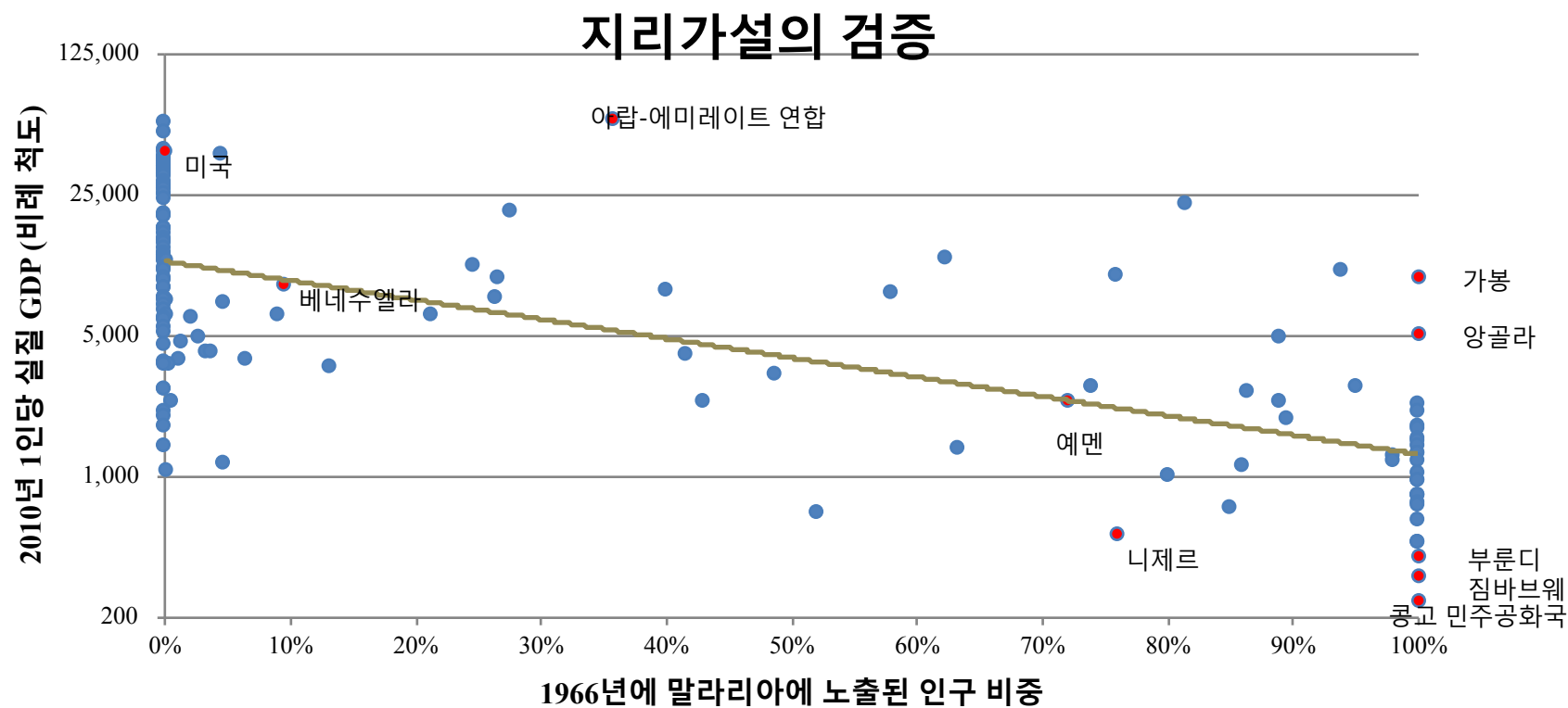
(월드비전)  
Dengue



(감염병관리지원단)

# 지리가설의 검증

- 실증 분석 결과는 가설을 지지
- 하지만 말라리아 노출 인구 비중이 0%와 100%인 국가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가설의 신뢰성이 저하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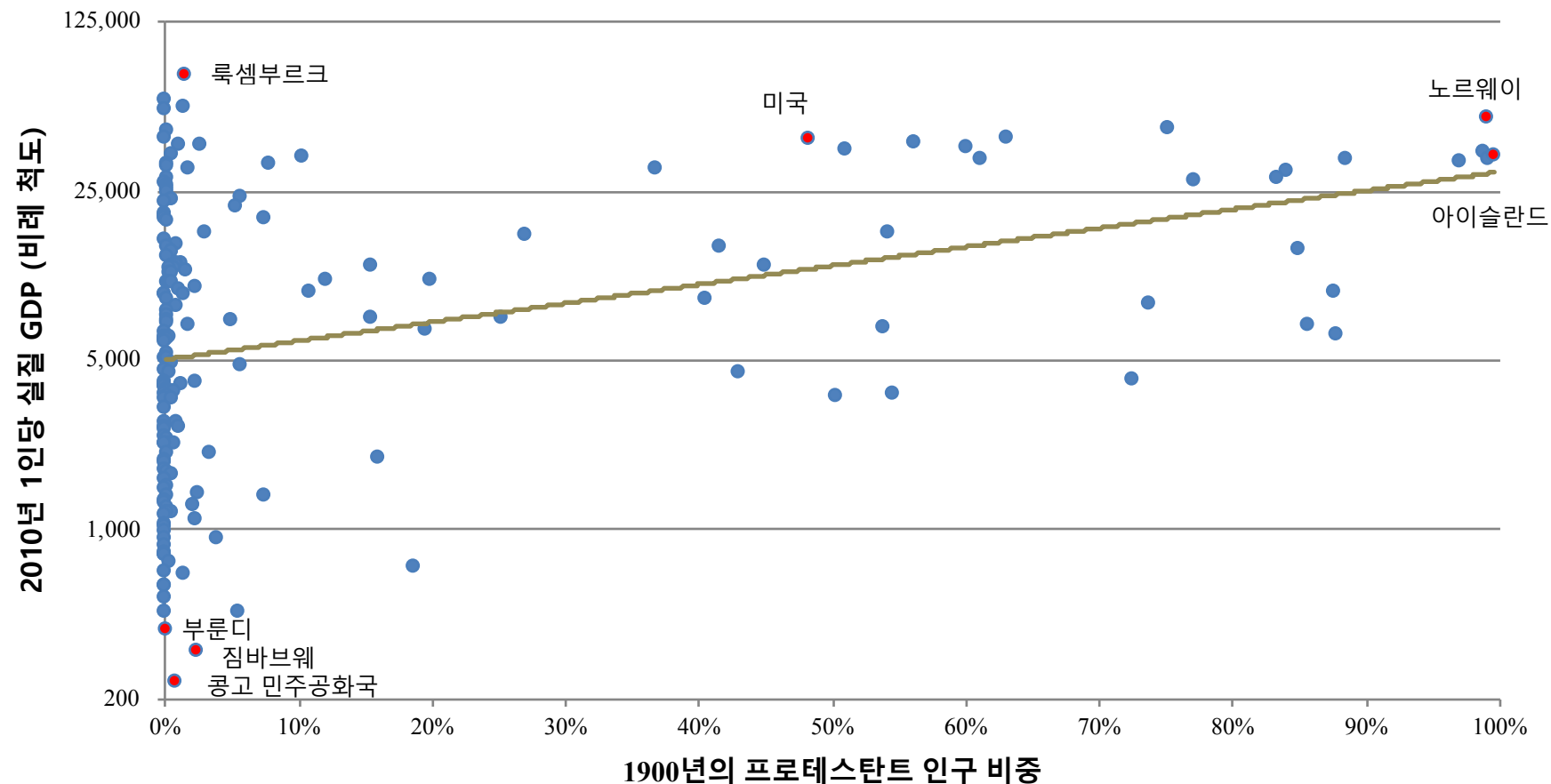
# 문화가설

- 번영의 차이가 다른 가치관과 문화적 신념 때문이라는 가설
- Max Weber (1905),
  - “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”
  -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더 많은 근로 노력, 더 높은 저축률, 더 높은 소득 수준을 초래한다고 주장



#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설의 실증검증

베버의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가설의 검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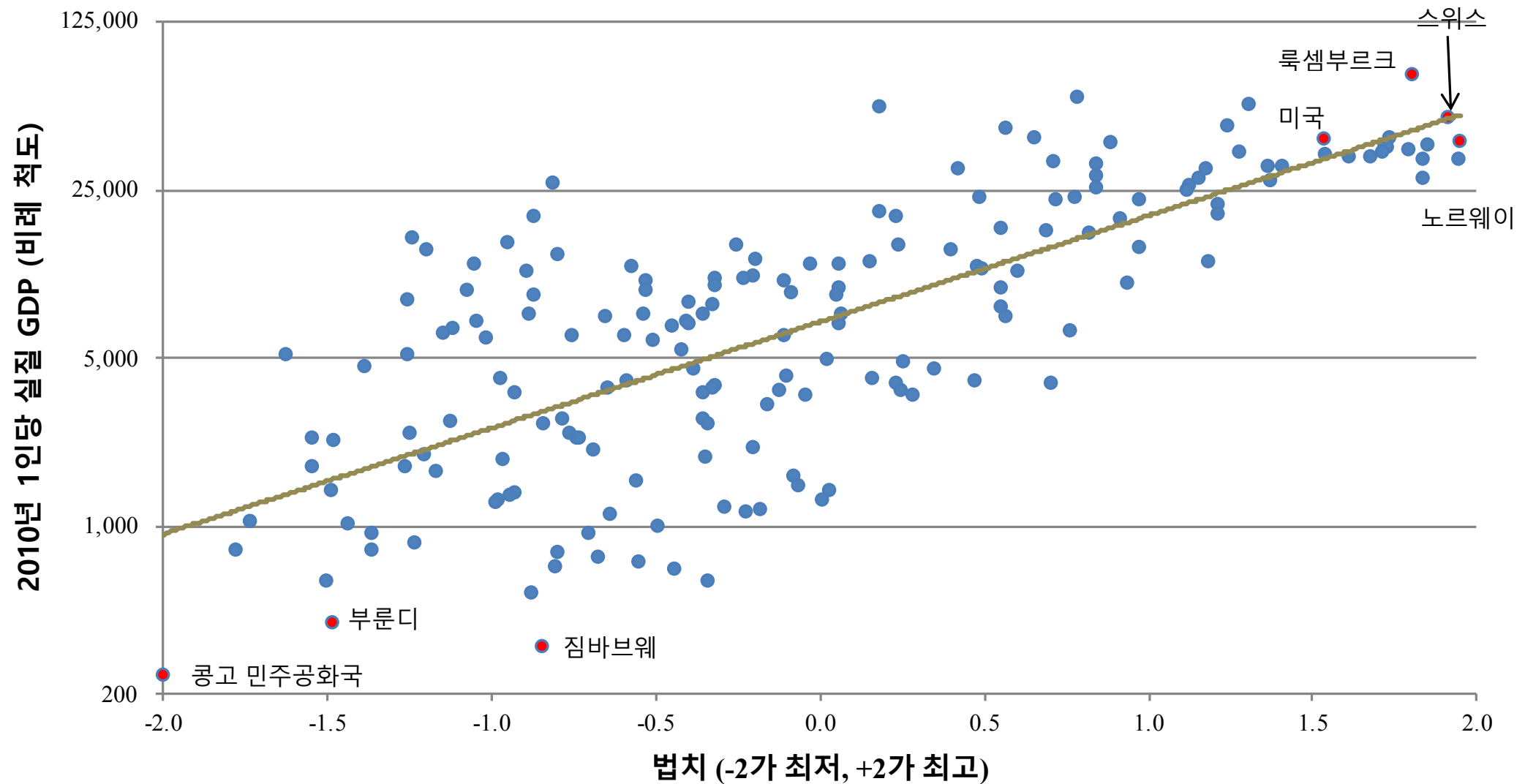
0%인 국가가 너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짐

# 제도가설

- 번영의 차이가 제도에 기인한다는 가설
- 제도:
  -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
  - 경제 주체 (개인, 기업)들의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방식

# 제도가설의 검증

## 제도가설의 검증



## 신빙성 있는 결과

# Natural Experiment: North vs. South Korea

- 자연 실험
  - 실험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험과 같은 상황이 형성된 것
- 1945년까지 북한과 남한은 동일한 언어/문화/지리를 가짐
- 이후 서로 다른 제도로 분단됨
- 제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상대적으로 동등한 상황  $\Rightarrow$  실험적 상황



# 결과

- 2010년 기준 1인당 GDP (PPP 환율)
  - 북한: \$1500
  - 남한: \$30000
- 제도가설의 강한 근거
  - 지리, 문화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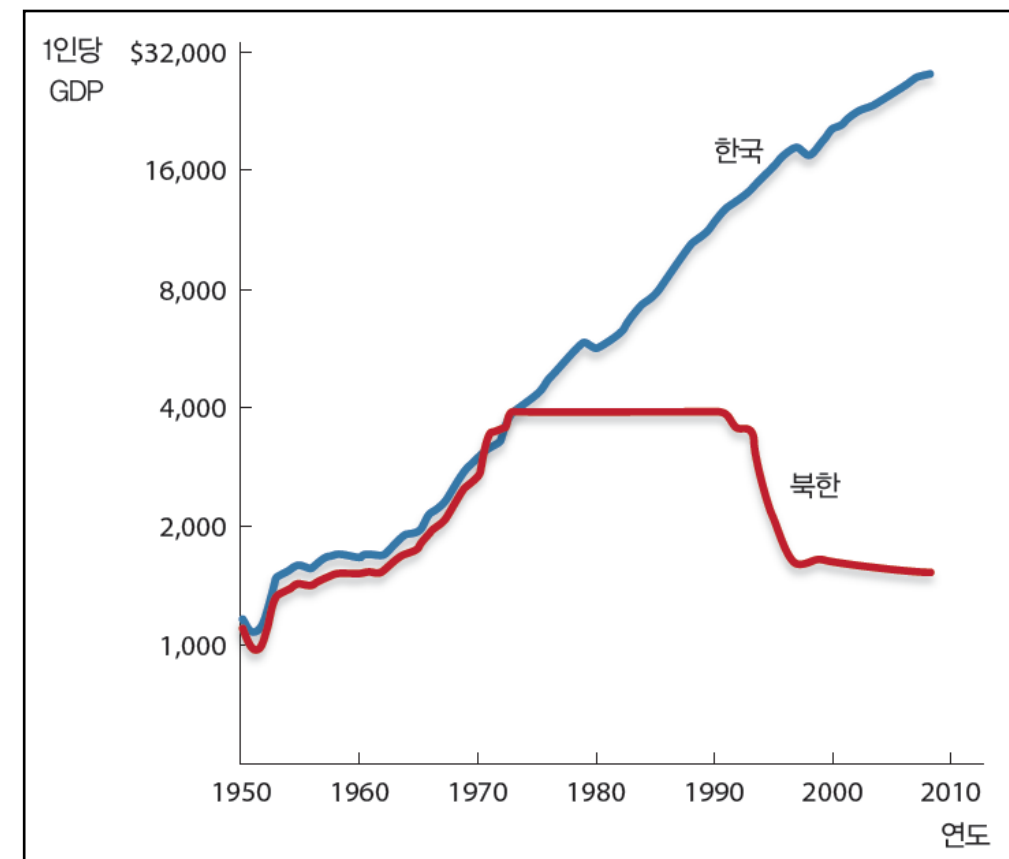


도표 22.2 한국과 북한의 1인당 GDP(PPP 조정 2005년 불변가격)



# 오스트리아 vs 체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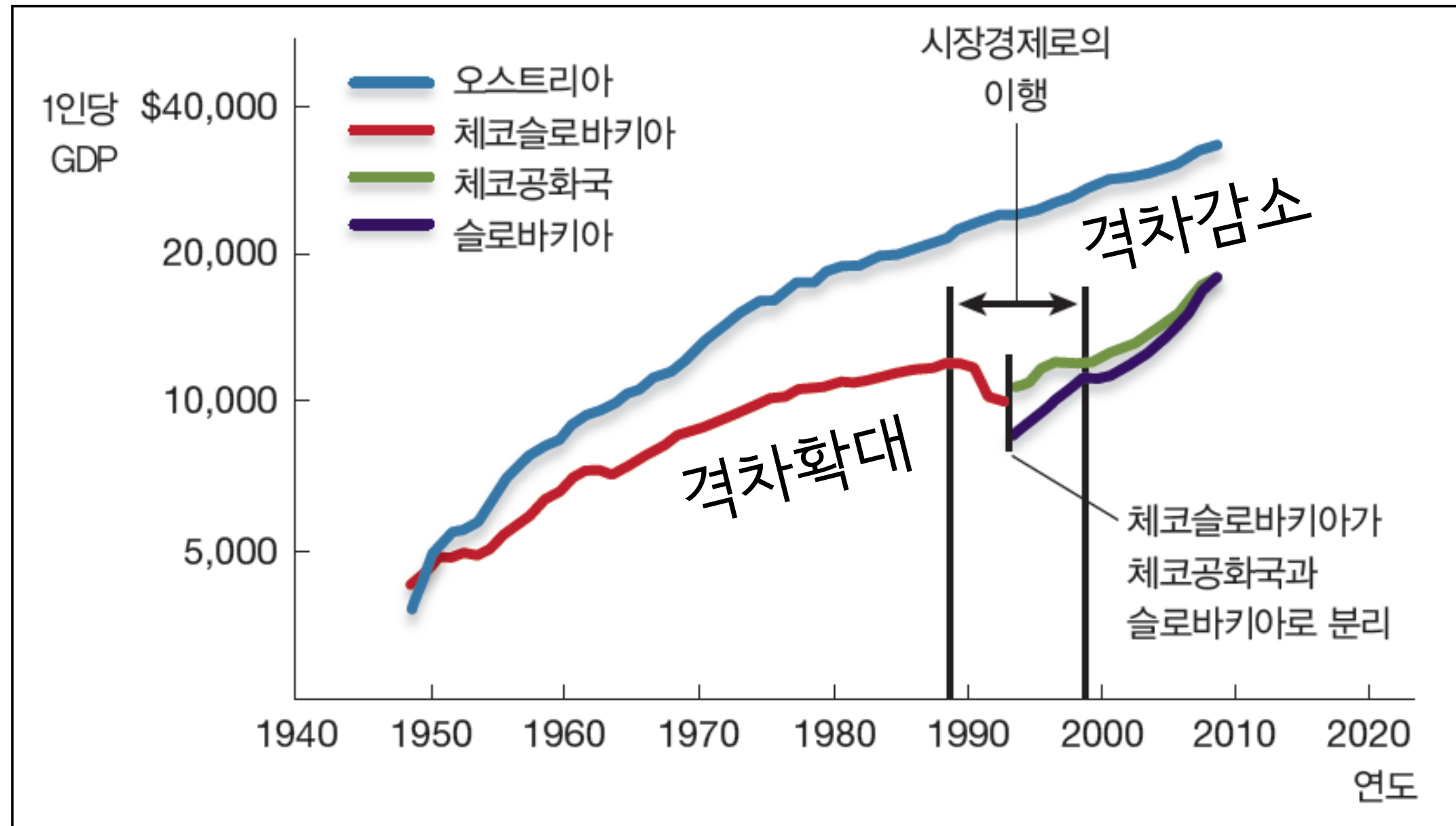


도표 22.3 1948년 이후 오스트리아와 그에 이웃한 체코슬로바키아의 1인당 GDP(PPP 조정 2005년 불변가격)

# 포용적 경제제도

- 사유재산 보호
- 법질서 유지
- 사적 계약을 허용, 이행에 대한 강제
- 새로운 사업과 직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 허용

# 착취적 경제제도

-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
- 사적 계약 부정
- 시장 개입
- 새로운 사업과 직업에 대한 진입 제한

# 제도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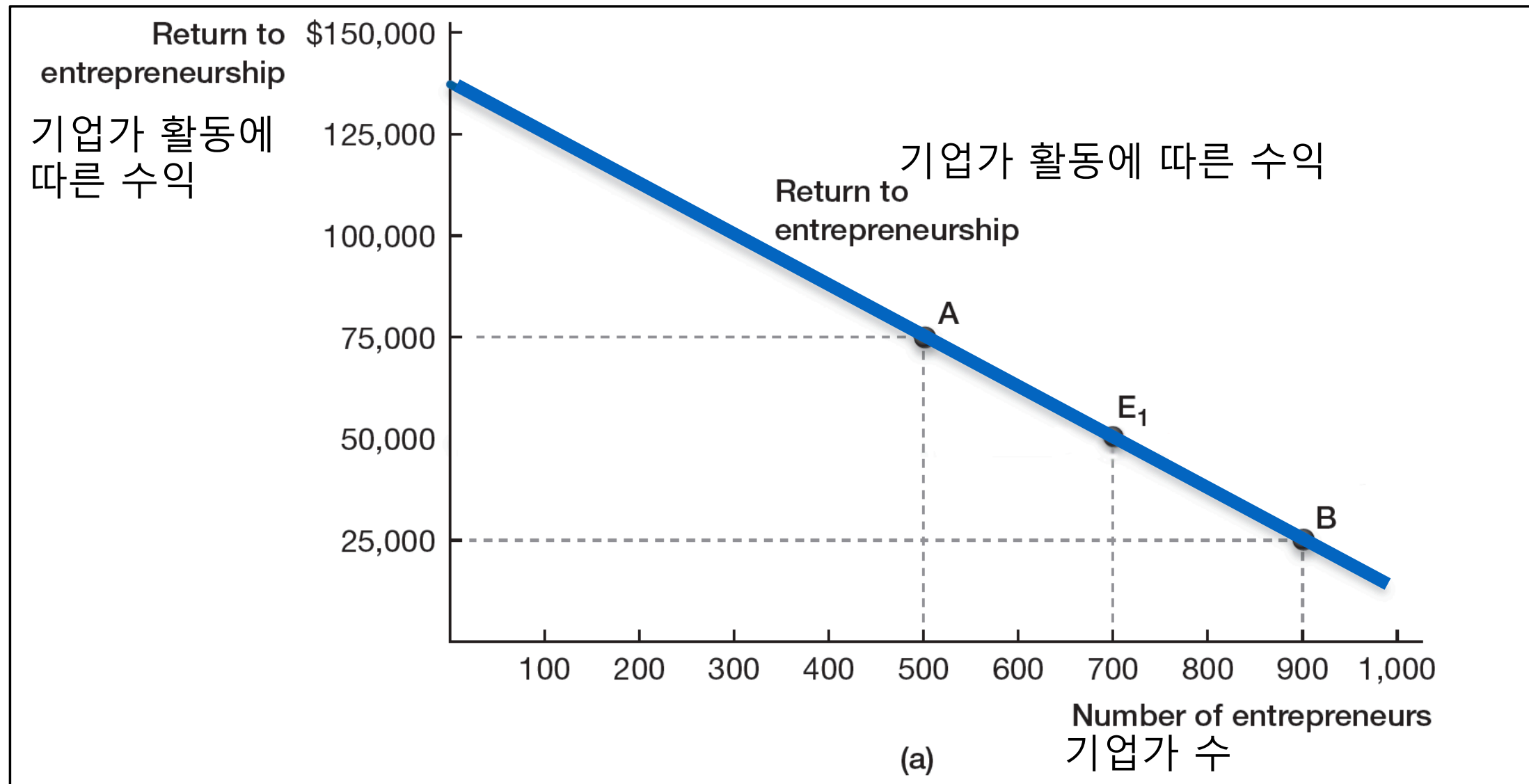


도표 22.4 (a) 착취적 경제제도는 기업가의 수를 어떻게 감소시키는가?

# 제도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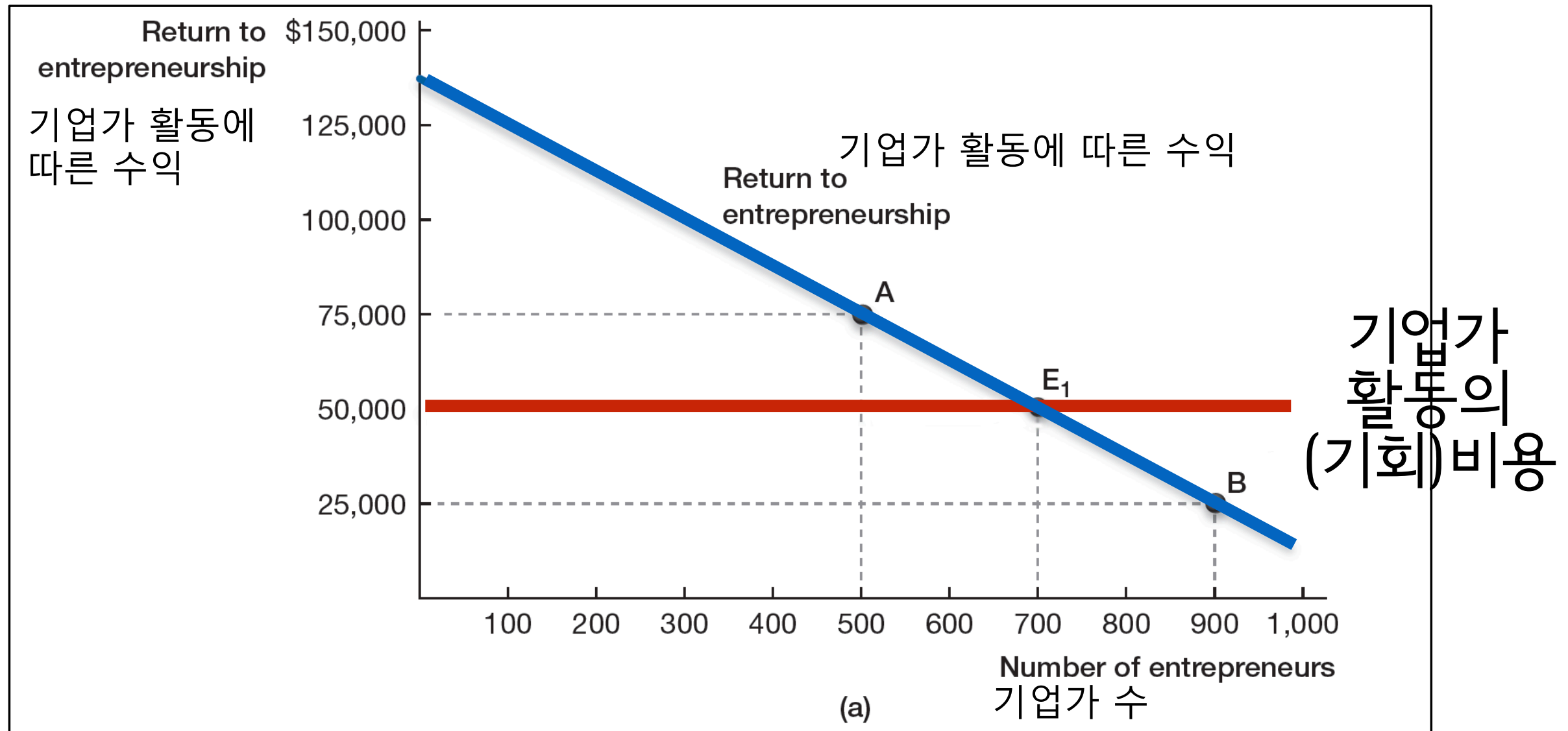


도표 22.4 (a) 착취적 경제제도는 기업가의 수를 어떻게 감소시키는가?

# 제도 모형

취약한 재산권,  
법집행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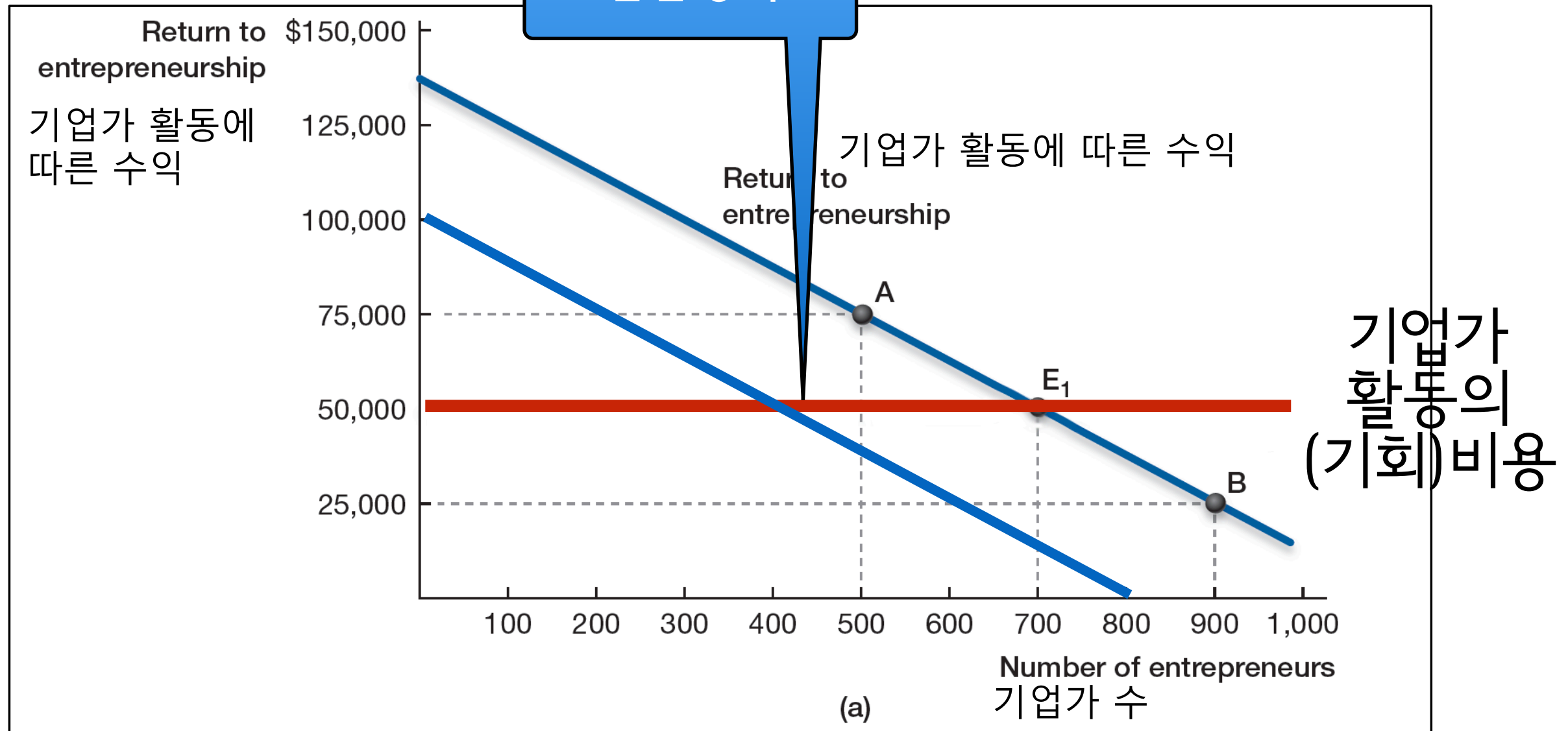


도표 22.4 (a) 착취적 경제제도는 기업가의 수를 어떻게 감소시키는가?

# 제도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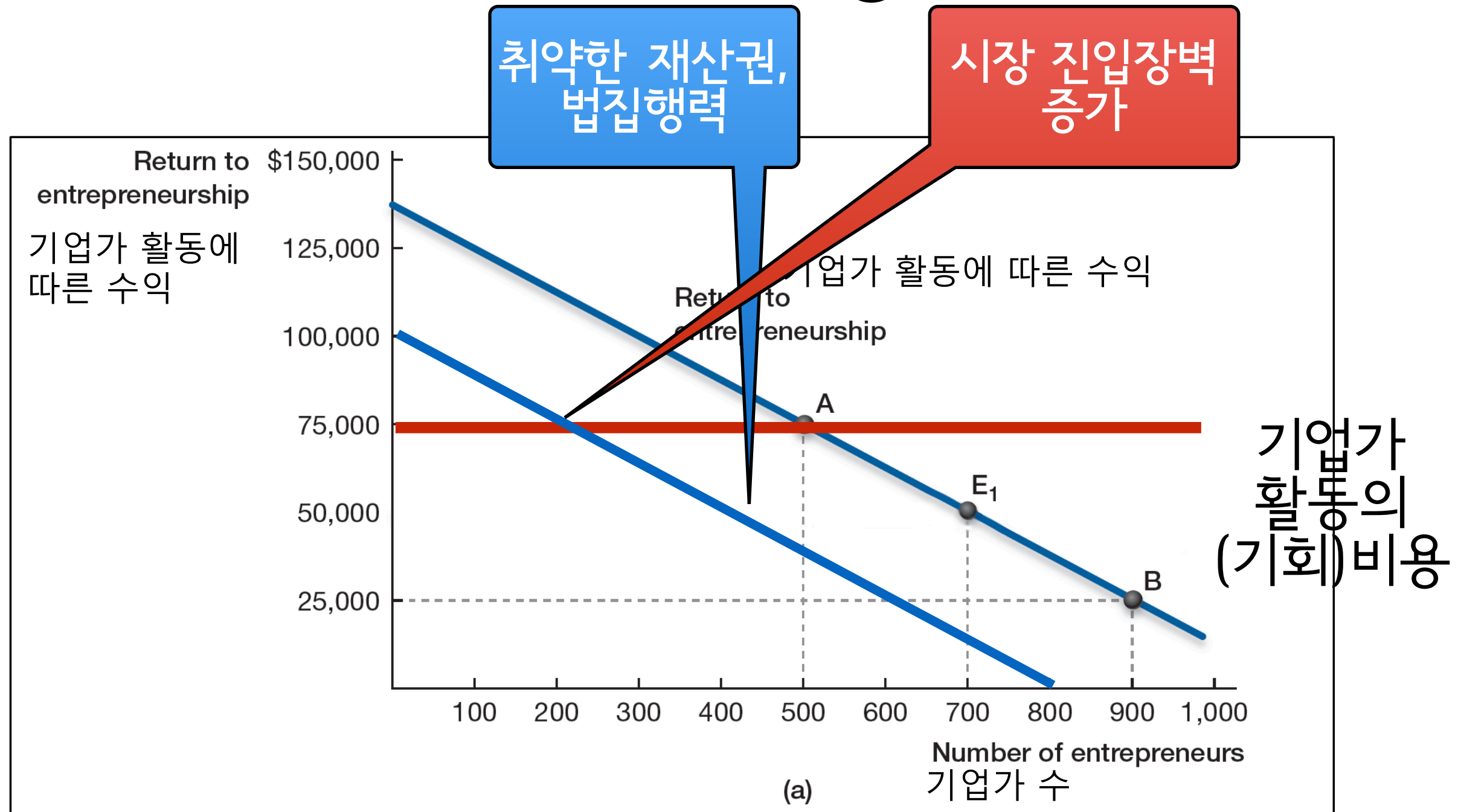


도표 22.4 (a) 착취적 경제제도는 기업가의 수를 어떻게 감소시키는가?

# 착취적 경제제도가 채택되는 이유

- 경제성장은 사회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
- 경제 시스템 자체가 중앙 집중적 시스템이 아닌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
- 단순한 지배구조는 이러한 복합적 시스템과 부적합  
⇒ 독재 구조와 양립하기 어려움
- 독재적 정치 시스템은 자신의 지배권력 유지를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채택할 유인이 존재



# 운명의 역전

- 1500년대에 번영했던 국가들은 현재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경향
- 1500년대에 부유하지 않았던 국가들의 현재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경향
- 1500년대의 1인당 GDP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
-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래 데이터를 추정하여 사용
  - 당시 문헌을 통해 추정한 1500년대의 인구밀도
  - 당시 문헌을 통해 추정한 1500년대의 도시화 정도

# 도시화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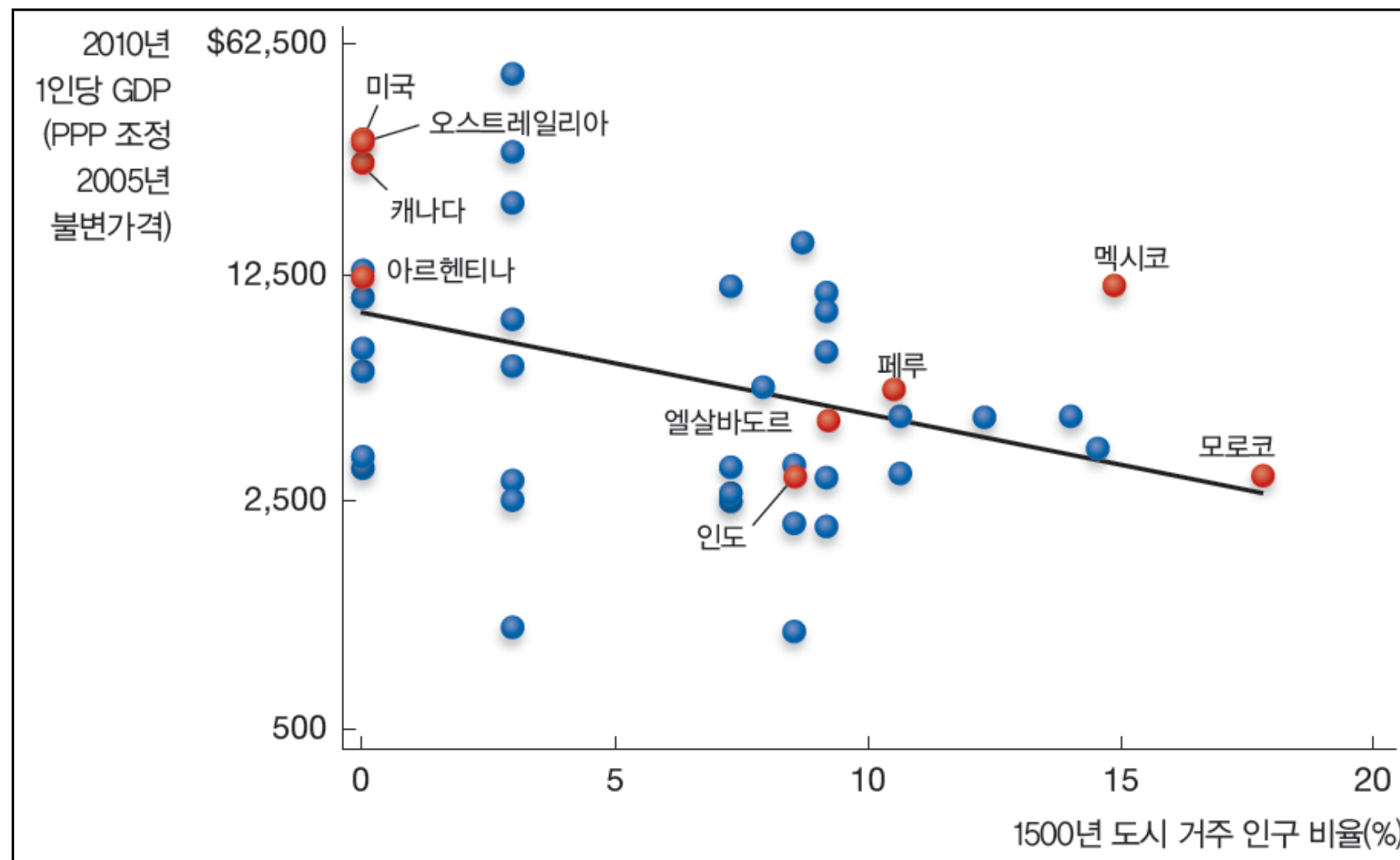


도표 22.6 도시화를 사용한 운명의 역전

# 인구밀도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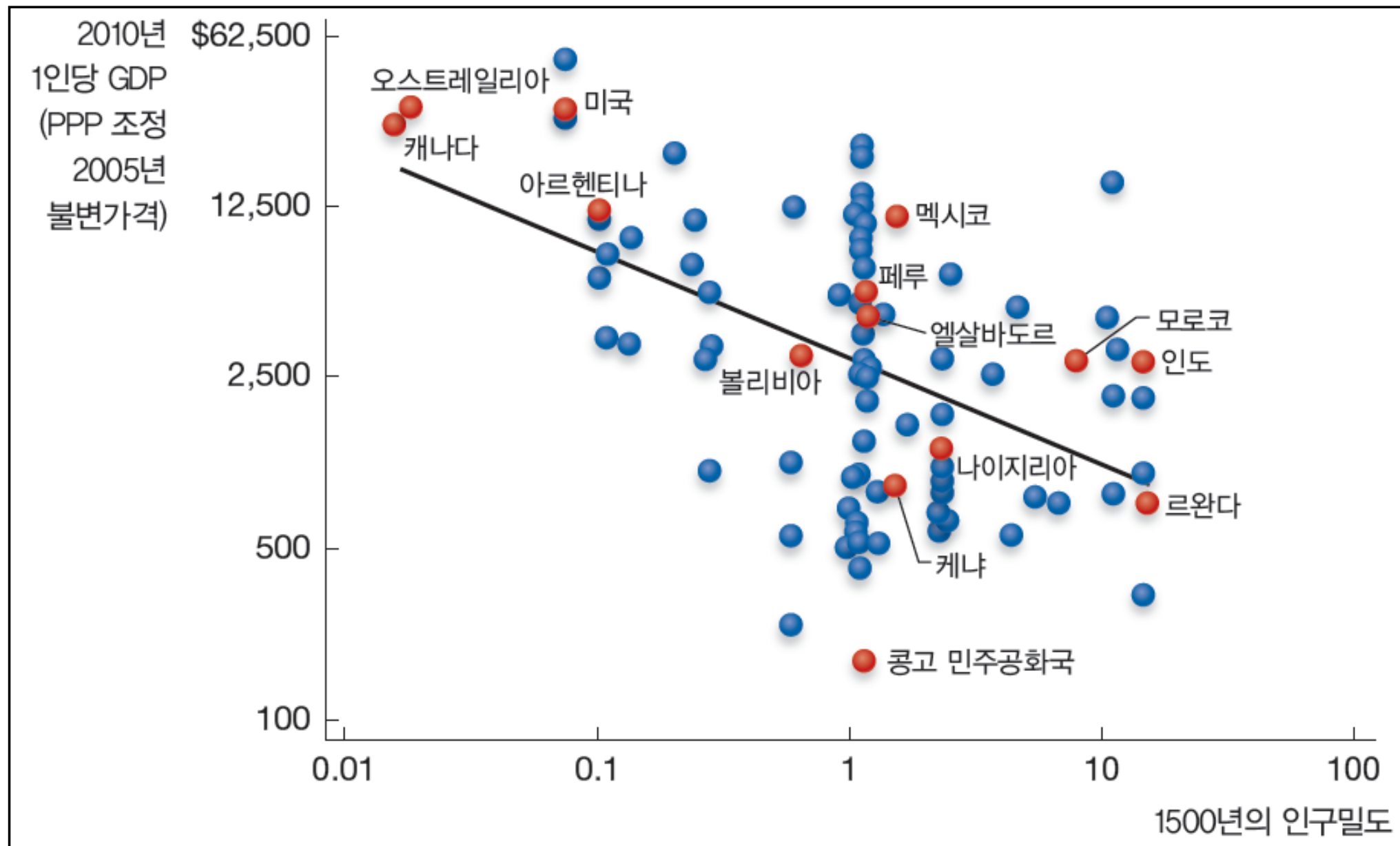


도표 22.7 인구밀도를 사용한 운명의 역전

# 설명 이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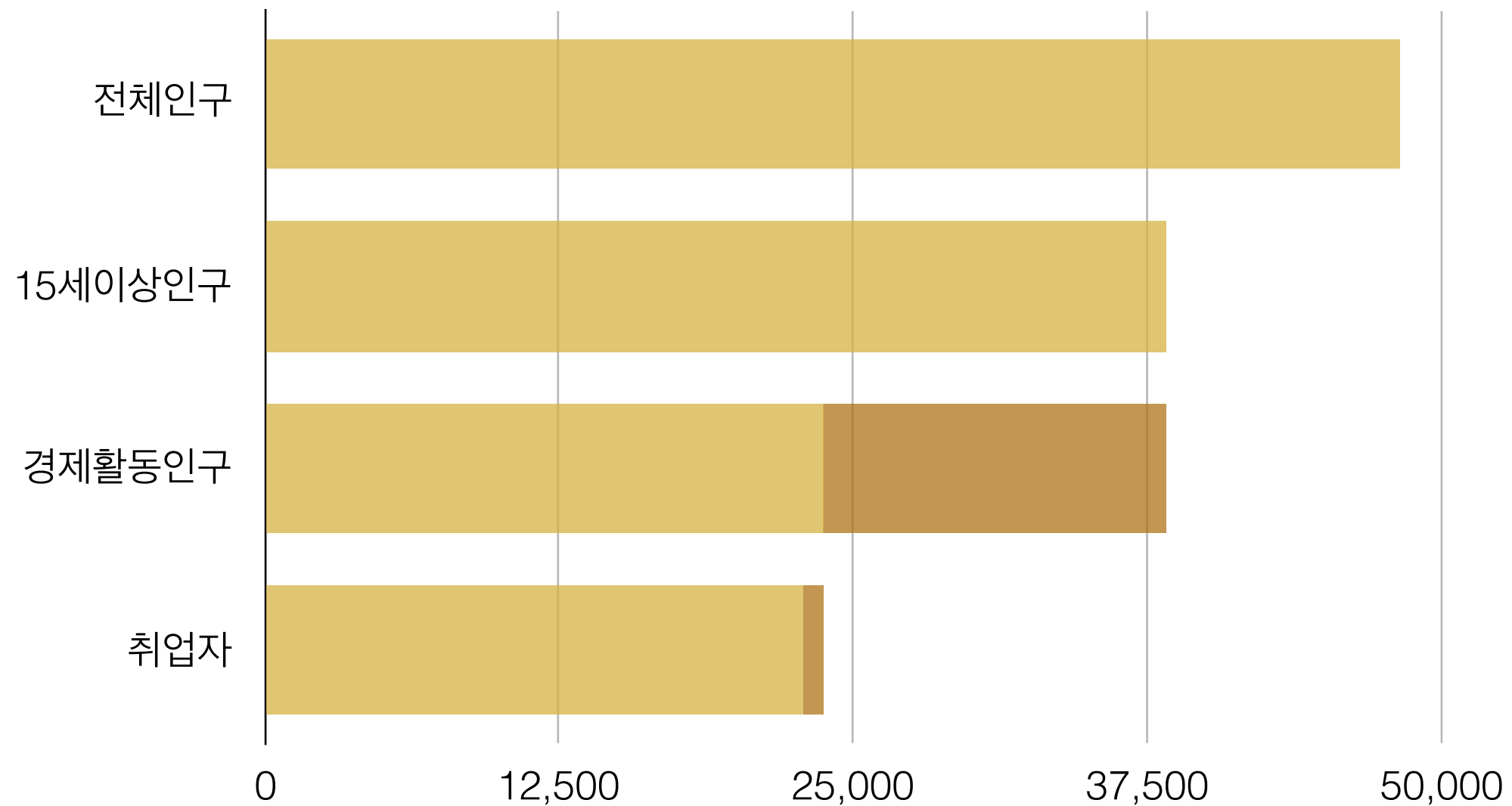
- 당시의 가난했던 온대지역에서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발전함
- 당시의 부유했던 열대지역에서는 착취적 경제제도가 발전함

# 고용과 실업

# 실업률 Unemployment Rate

-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
- 실업자: 직업을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한 사람
- 주요 거시지표: 후생과 직접 연관

# 실업률의 산출법



# 실업률의 산출법





# 실업률의 산출법

경제활동참가율:  $B/A \times 100 = 62.0\%$



# 실업률의 산출법

경제활동참가율:  $B/A \times 100 = 62.0\%$     고용률:  $C/A \times 100 = 59.7\%$



# 실업률의 산출법

실업률:  $D/B \times 100 = 3.7\%$

경제활동참가율:  $B/A \times 100 = 62.0\%$     고용률:  $C/A \times 100 = 59.7\%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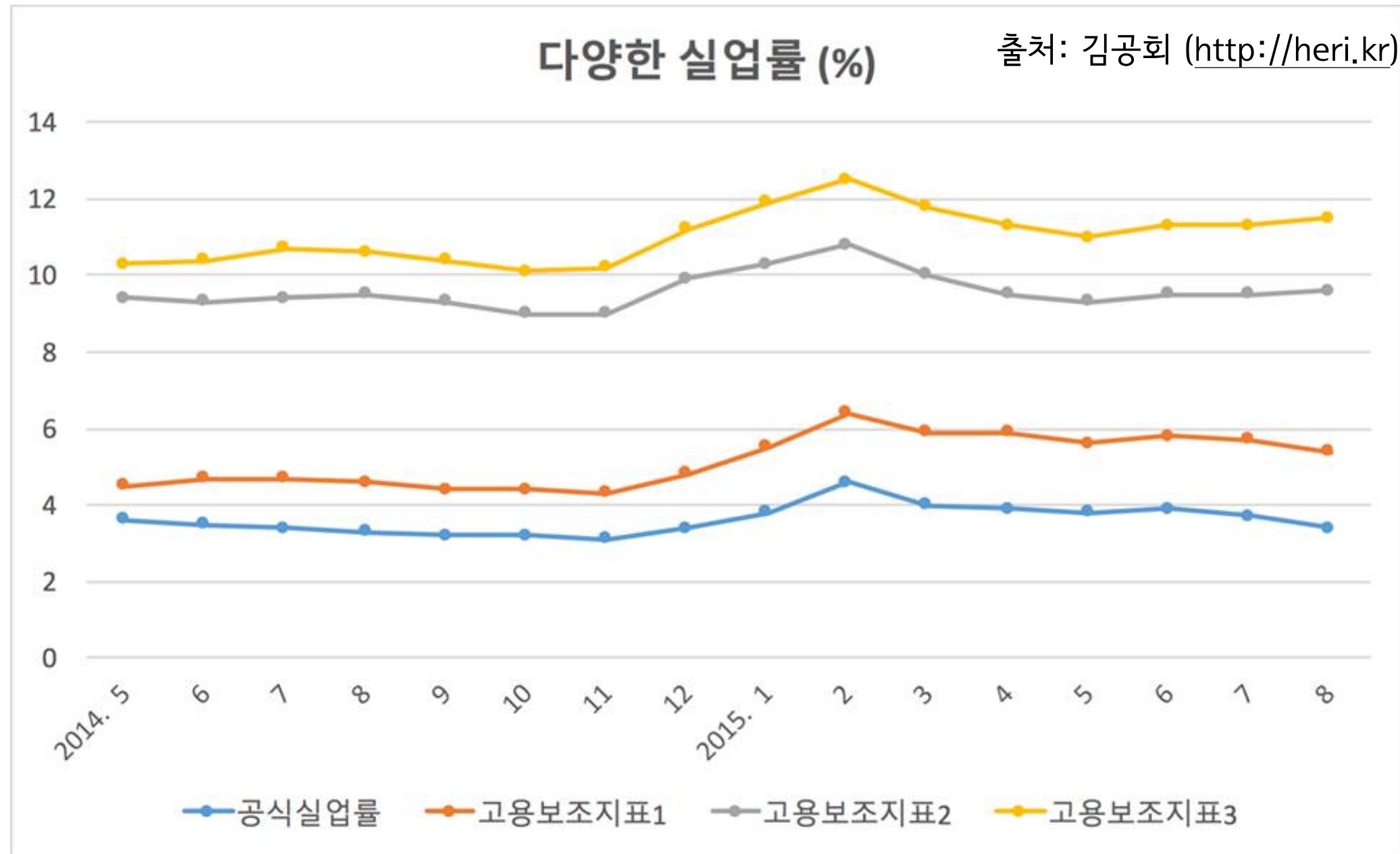
# 대안지표: 고용보조지표

## Alternatives: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s

- A: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
  - 취업자 중 실제취업시간<36H/W & 추가취업희망 & 추가취업가능
- B: 실업자
- X: 경제활동인구
- Y: 잠재경제활동인구
  - :=잠재취업가능자+잠재구직자
  - 잠재취업가능자: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 & 조사 대상주간에 취업 불가능
  - 잠재구직자: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안함 & 조사대상주간에 취업 희망 & 취업 가능
- 15세이상인구 - (X+Y) = 그 밖의 비경제활동인구

	분자	분모
고용보조지표 1	A+B	X
고용보조지표 2	B+Y	X+Y
고용보조지표 3	A+B+Y	X+Y
실업률	B	X
고용률	X-B	15세이상
경제활동참가율	X	15세이상

# LUI in Korea: 2014.5-2015.8



# 취직과 실직

## Employment, Unemployment

- 일자리는 유동적: 상황에 따라 달라짐
  - ex1) 2001년 미국 닷컴버블붕괴: IT 대량실업 발생
  - ex2) 한국의 공업화: 농촌인구의 지속적 실직
  - ex3) 기타 다양한 미·거시적 상황들

# 실업의 종류

- 마찰적 실업
- 구조적 실업
- 경기적 실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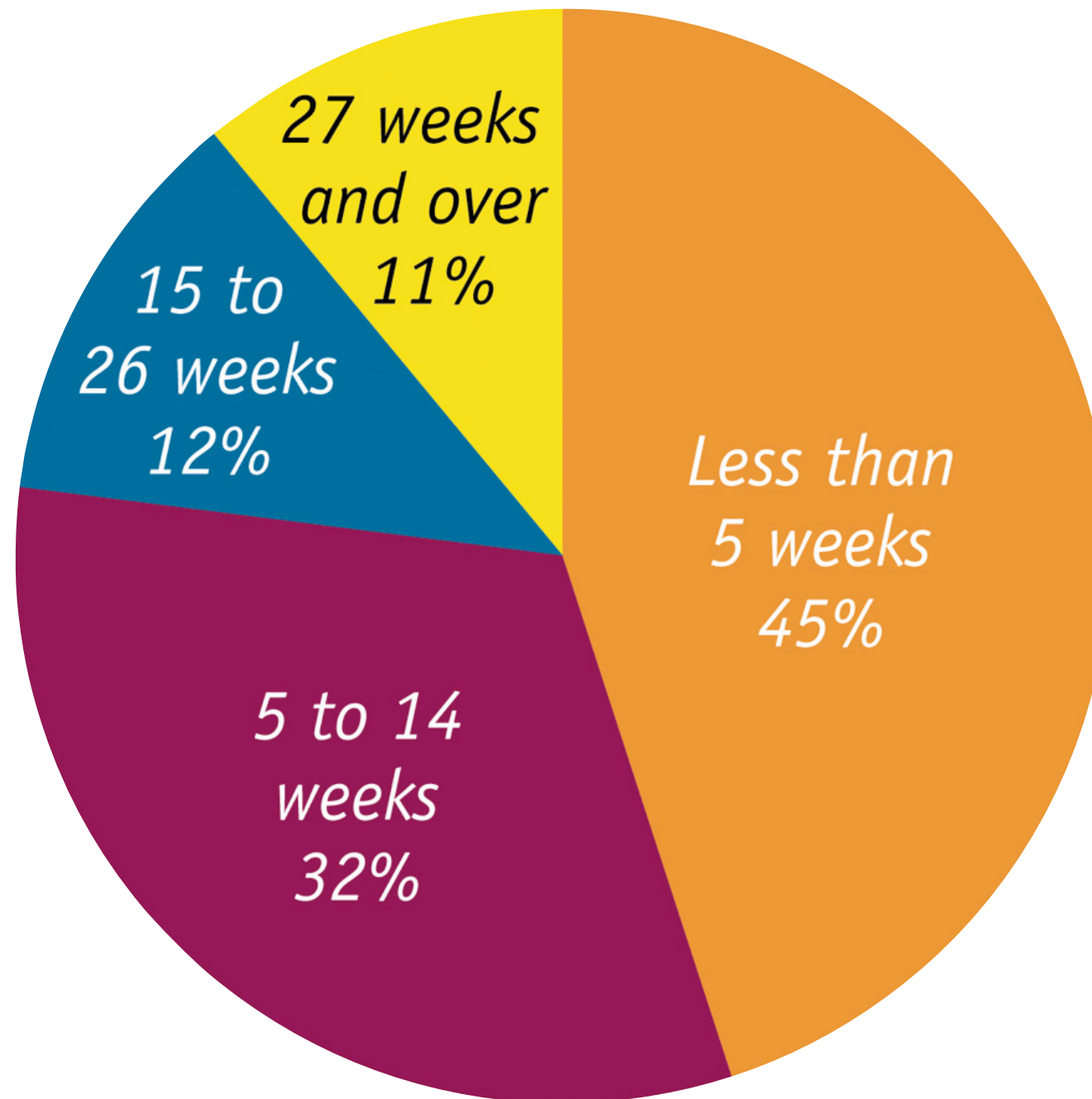
# 마찰적 실업

## Frictional Unemployment

- 실직자가 자신에게 적당한 직장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림
- 마찰적실업: 직장 탐색(Job Searching)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
- 모호한 구분기준: 오래 지나도 탐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경기적 실업에 가까움



# Job Searching Period US, 2000



# 마찰적 실업의 의미 Meaning

- 일정 정도의 직장 탐색은 필연적이므로 마찰적 실업의 발생은 자연적인 현상:
- 완전고용상태에도 발생
- 효율적인 직장 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줄여줄 수 있음

# 예: 정부의 직장탐색 프로그램(korea.kr)

## 직장생활

### • 직장생활

#### ▶ 일반취업정보

취업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

- 대상 : 취업희망자
- 제공정보 : 업종별, 지역별 취업정보 안내해 드립니다.



#### ▶ 직업심리검사/직업탐색

직업 심리 검사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

- 대상 : 취업
- 제공정보 : 직업안내, 직업적성 검사, 직업전망에 대한 안내정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



#### ▶ 취업창업 교육 가이드

취업 창업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.

- 대상 : 취업창업희망자
- 제공정보 :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, 면접 요령, 재직자/실업자 훈련교육정보 및 창업 교육에 대한 다양한 안내해 드립니다.



# 구조적 실업

## Structural Unemployment

- 어떤 부문의 노동 시장은 직장 수 자체가 구직자보다 적을 수 있음
- 이럴 때에 발생하는 실업도 필연적: 구조적 실업
  - 경제구조적 요인
  - 비용(임금)요인

# 구조요인 Structural Factors

-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
  - 산업화: 1차산업부문에 구조적 실업발생
  - 탈산업화(서비스산업화): 2차산업부문에 구조적 실업 발생
  - 기타 요인: 아웃소싱 등
- 대책: 인력 재훈련 프로그램, 장기적 구조변동 대비 등

**정부 발급 카드로 원하는 직업훈련 받는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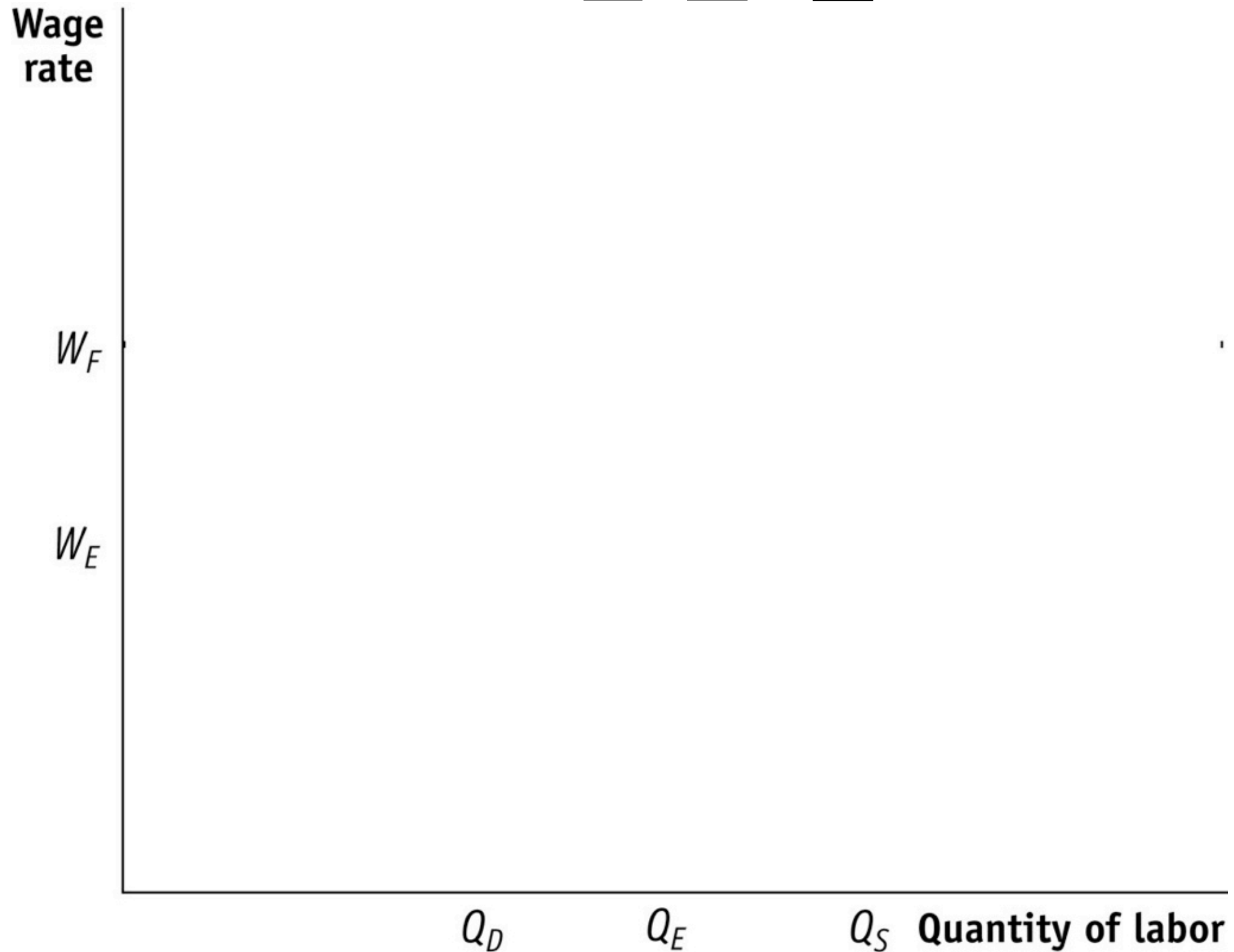
**최고 200만원 지원 '직업능력개발계좌제' 전국 확대**

구직자가 1년 동안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'직업능력개발계좌제'가 전국으로 확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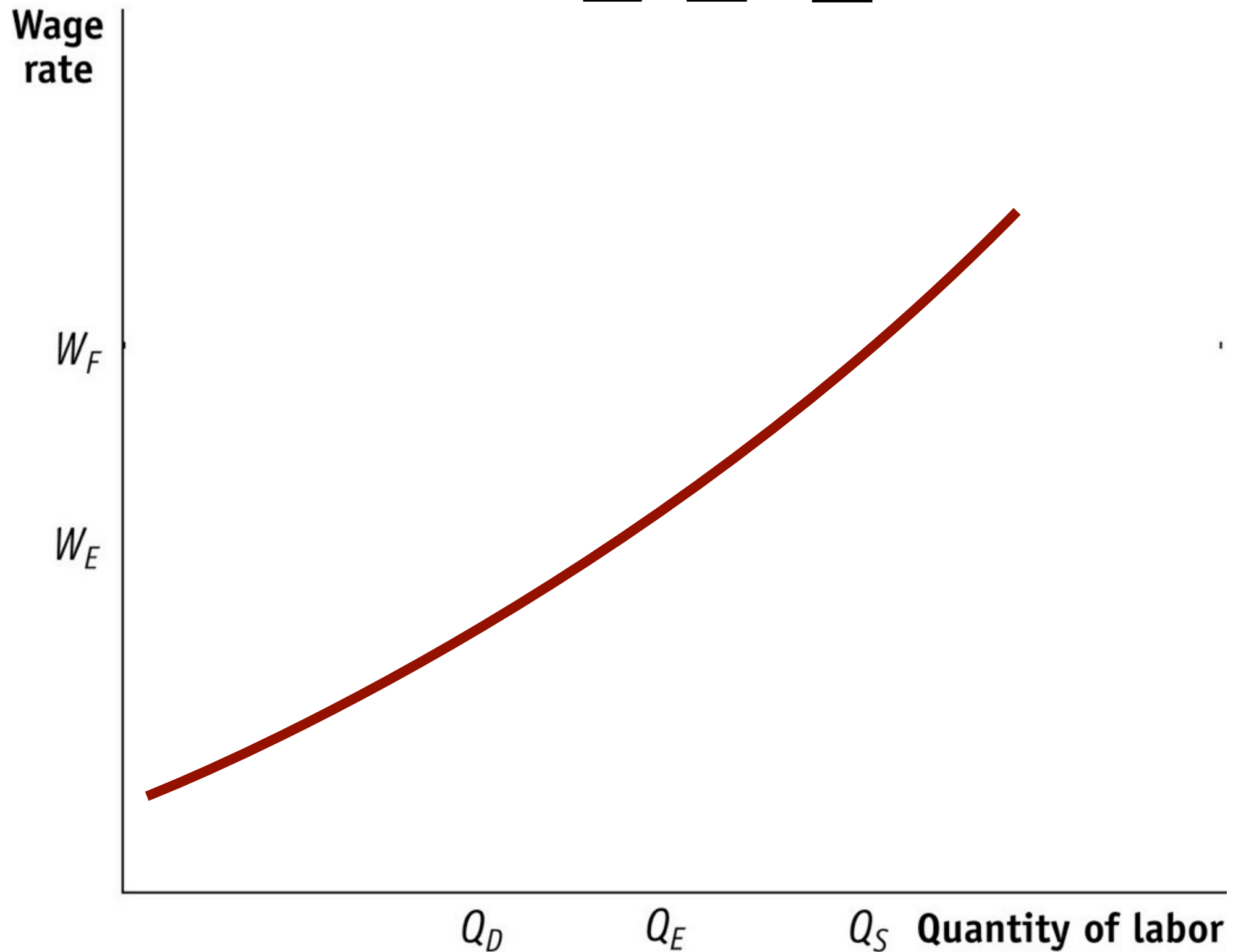
# 비용요인 Cost Factors

- 임금이 노동시장 균형수준보다 높을 경우 발생
  - 최저임금
  - 노동조합
  - 효율임금가설
  - 정부정책

# 최저임금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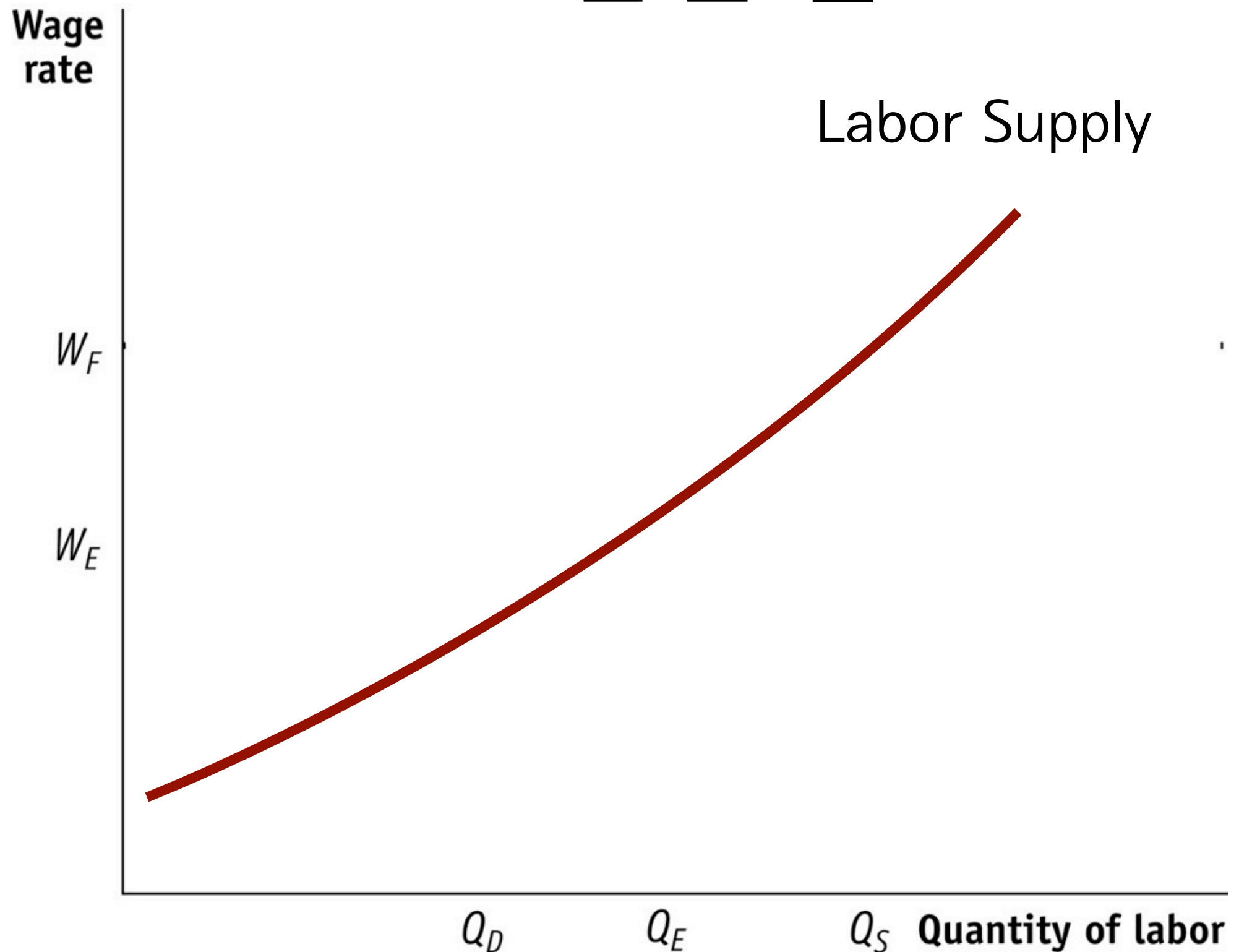


# 최저임금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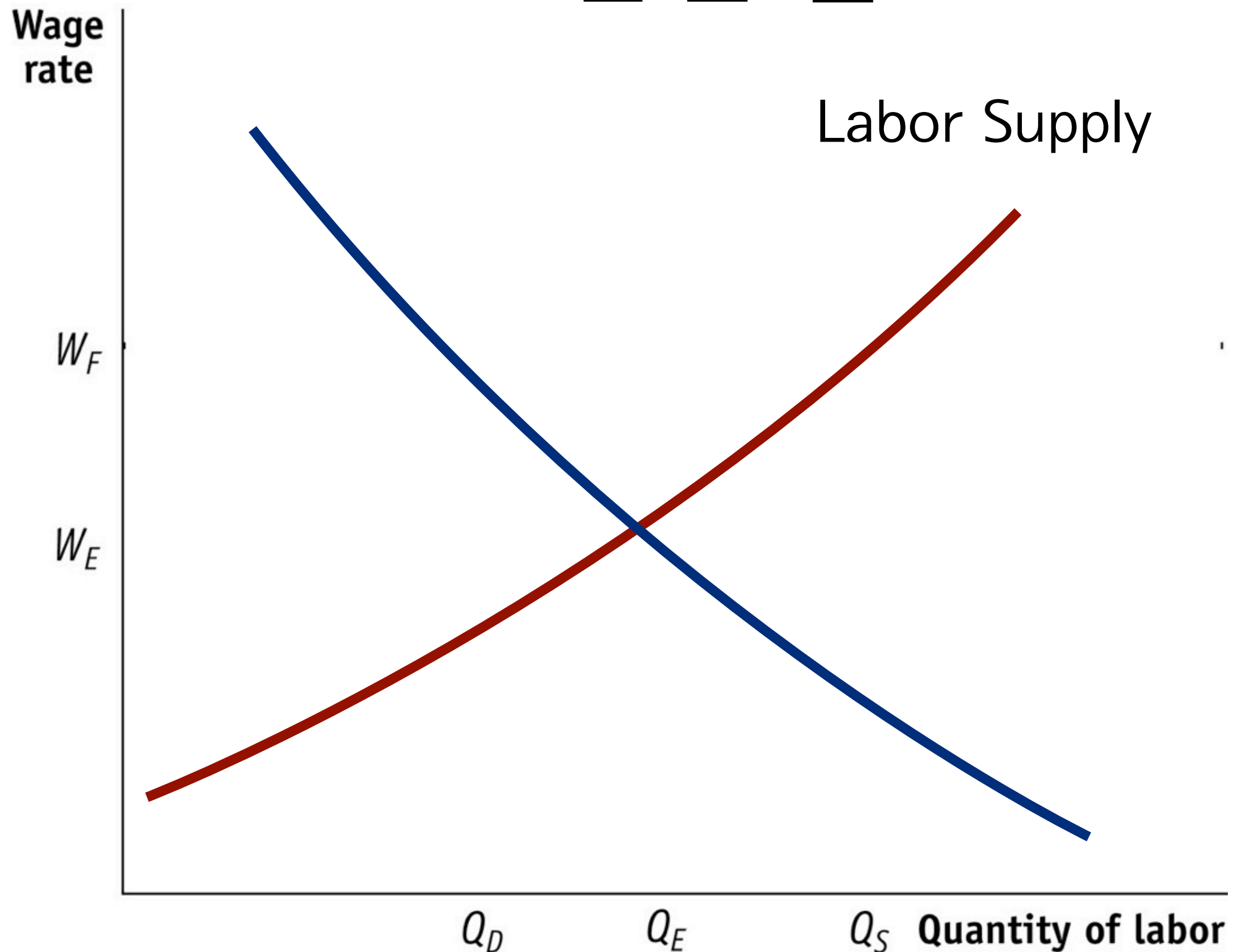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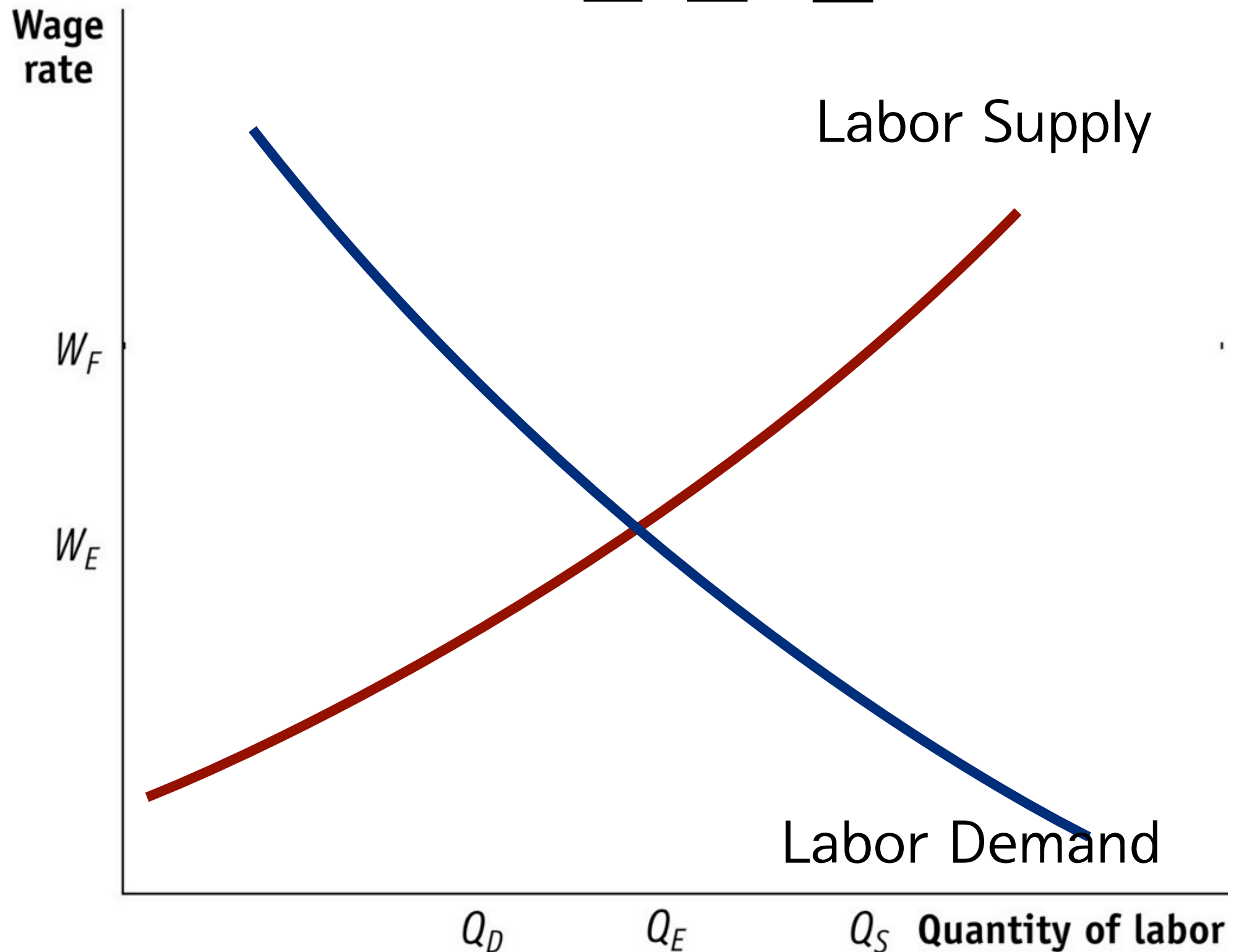
# 최저임금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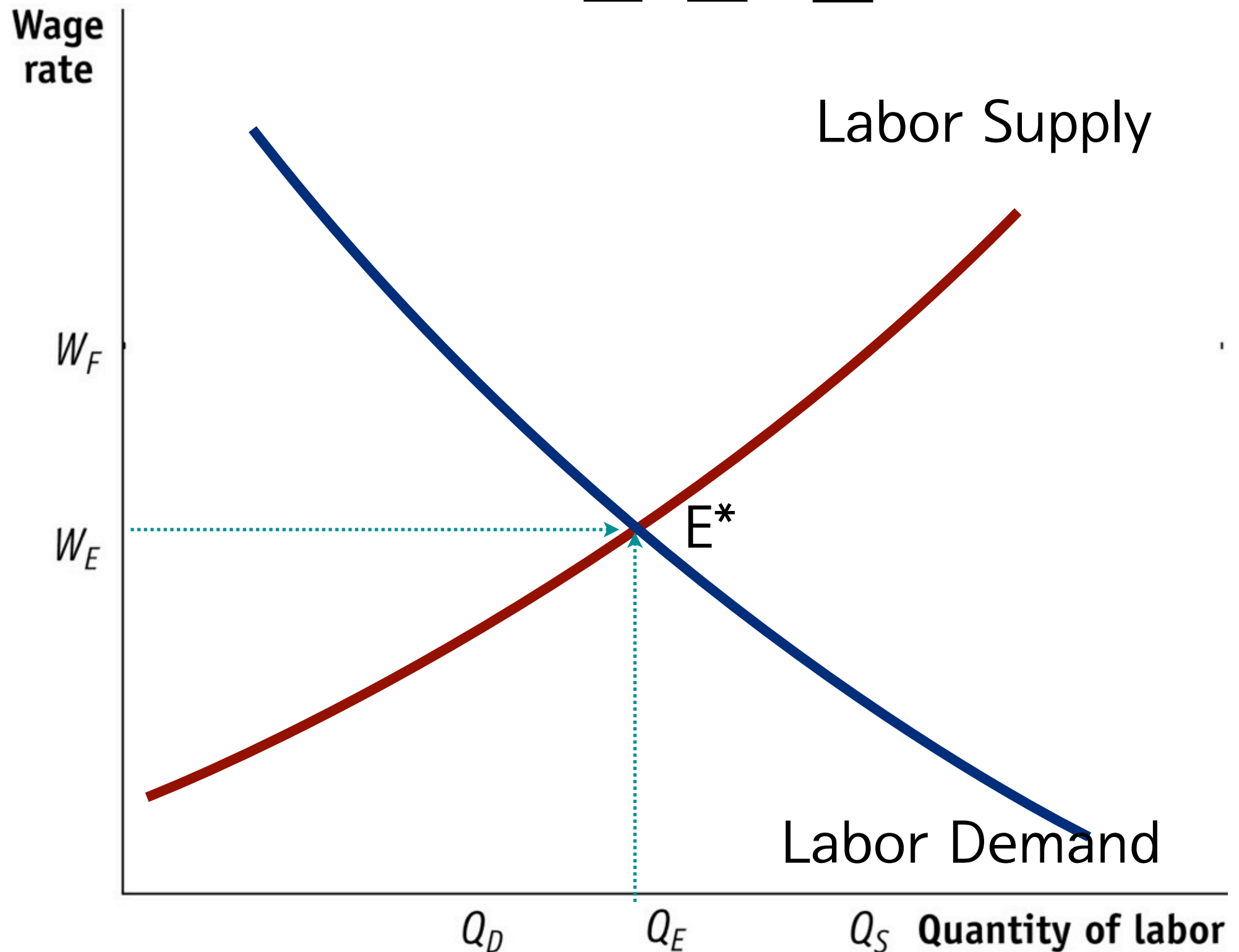
# 최저임금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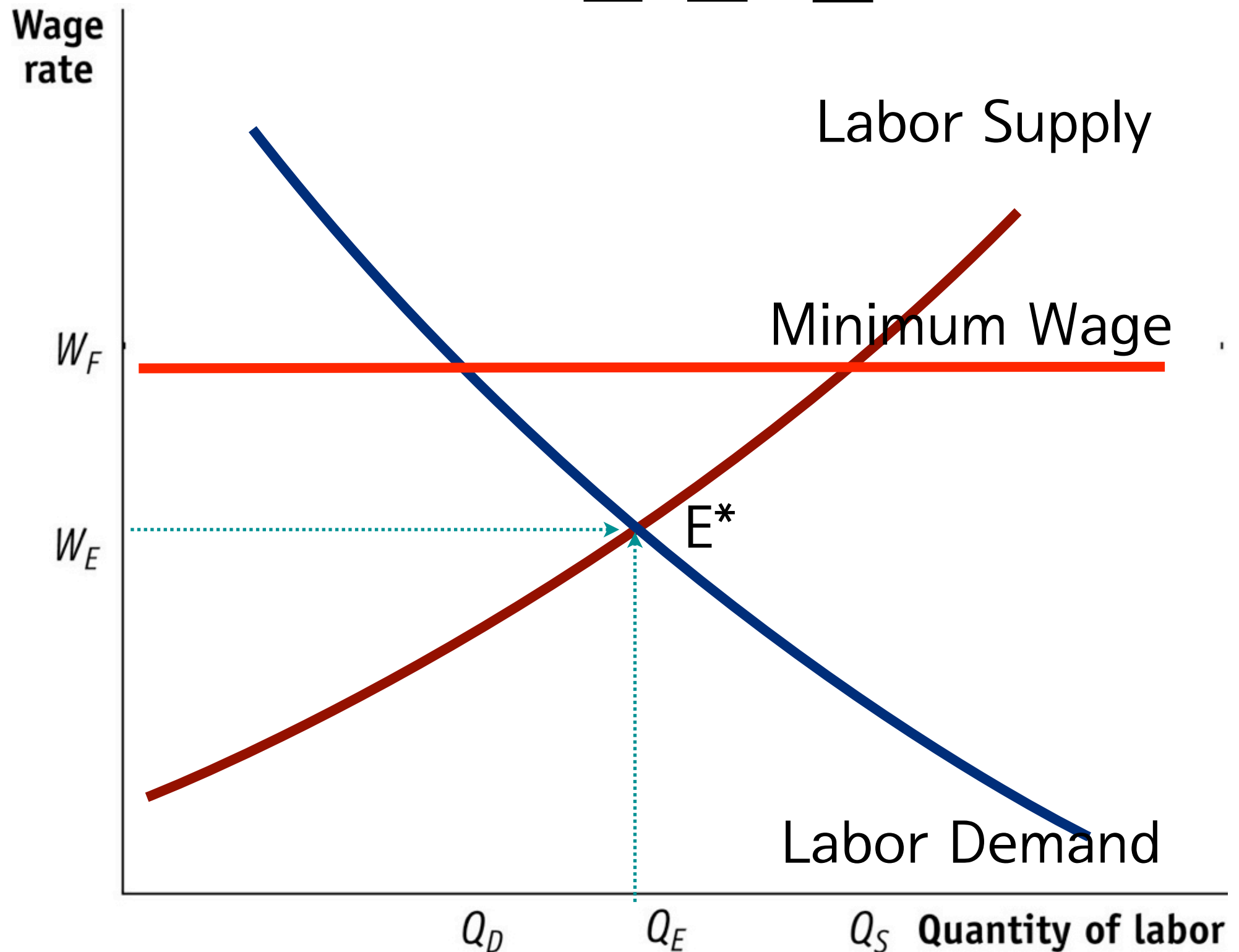
# 최저임금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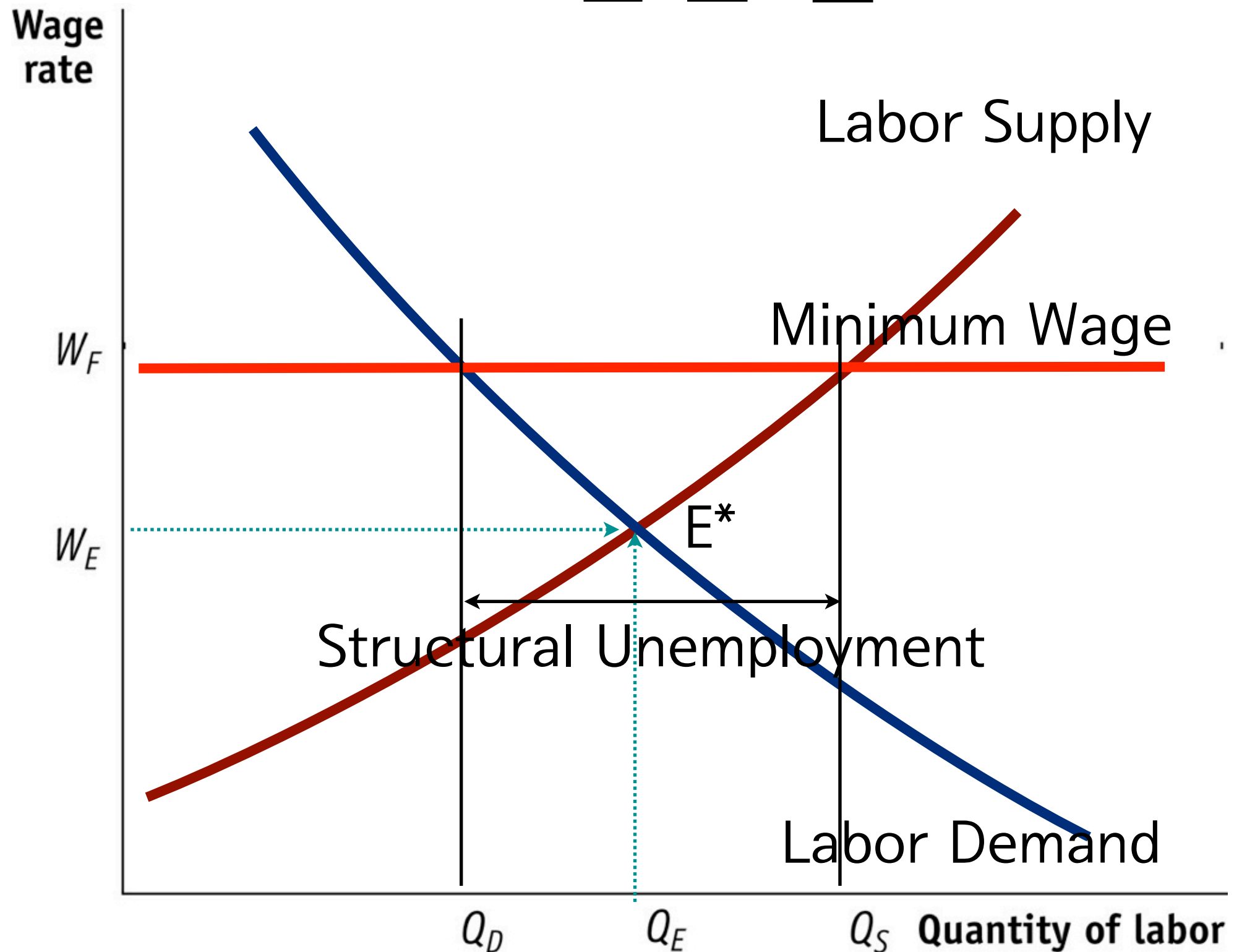
# 최저임금설



# 최저임금설



# 최저임금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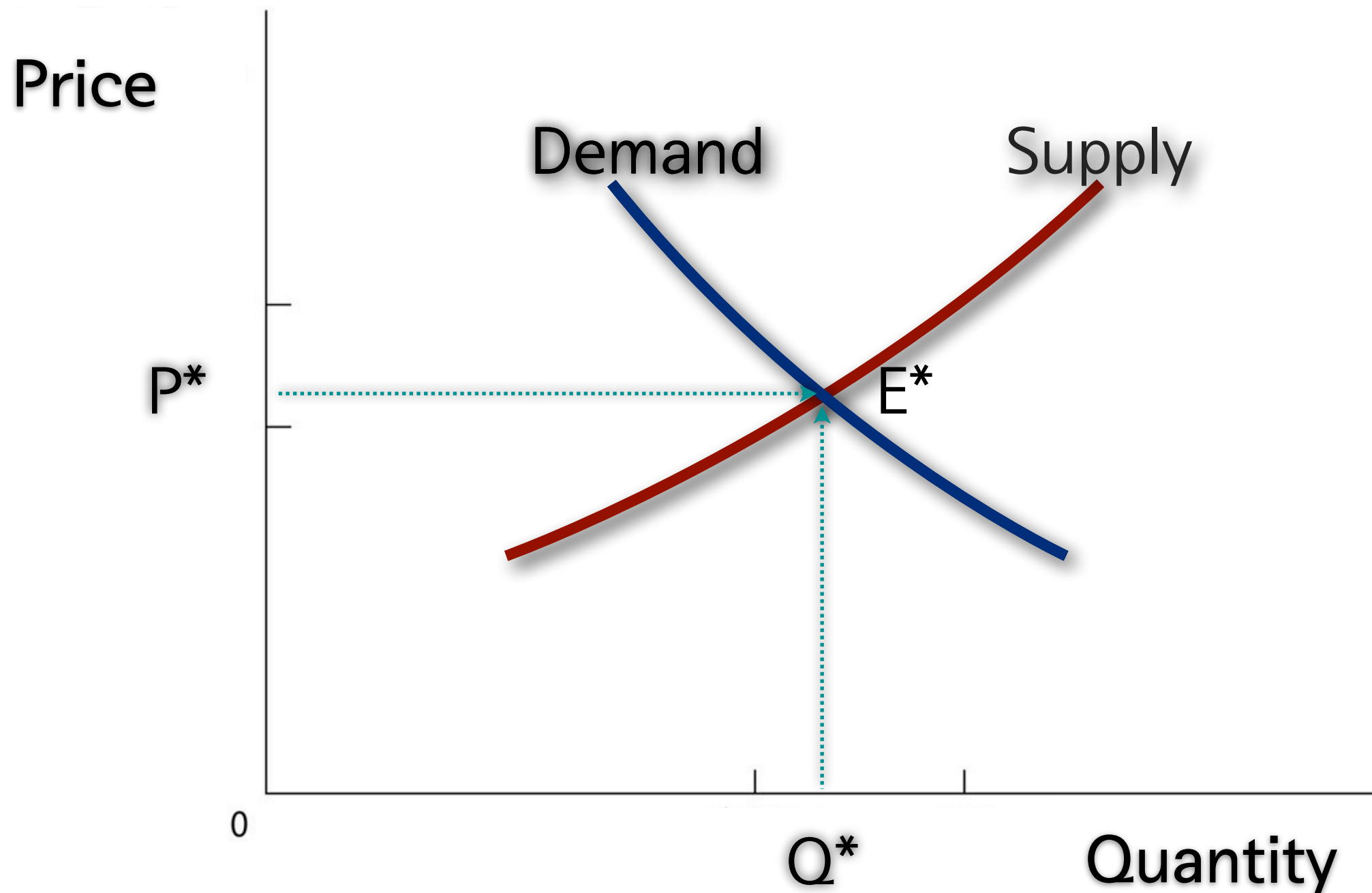
# 복습(원론1): 가격하한제 Price Floor

- 가격의 하한을 설정하여 하한 이하의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
- 주로 공급측을 보호하기 시행
  - ex) 최저임금
- 원론적으로는 균형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가 없음
  - 하지만 한국 임금체계는 복잡한 상여금, 수당 제도로 인해 위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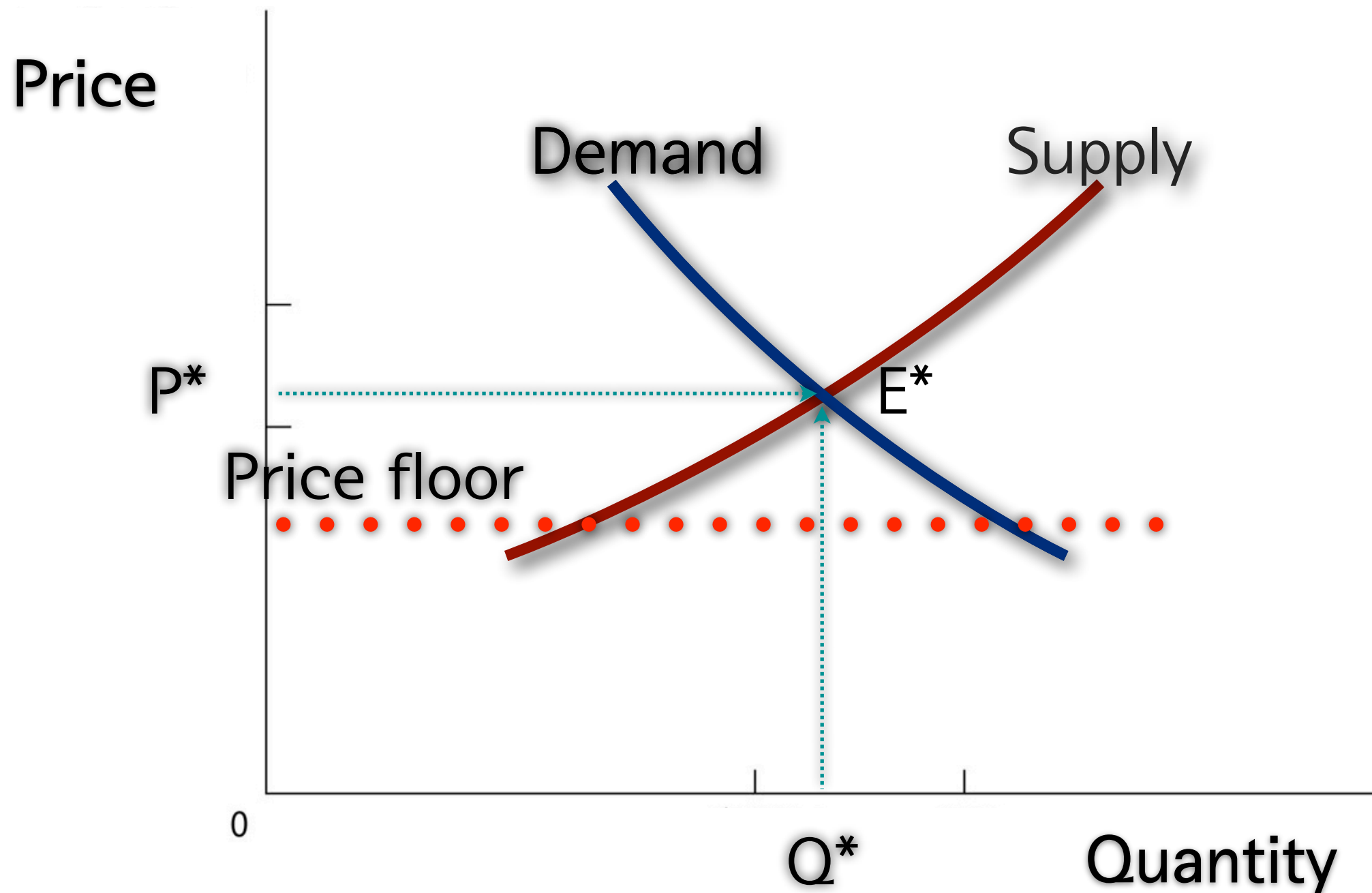
# 가격하한제가 유효한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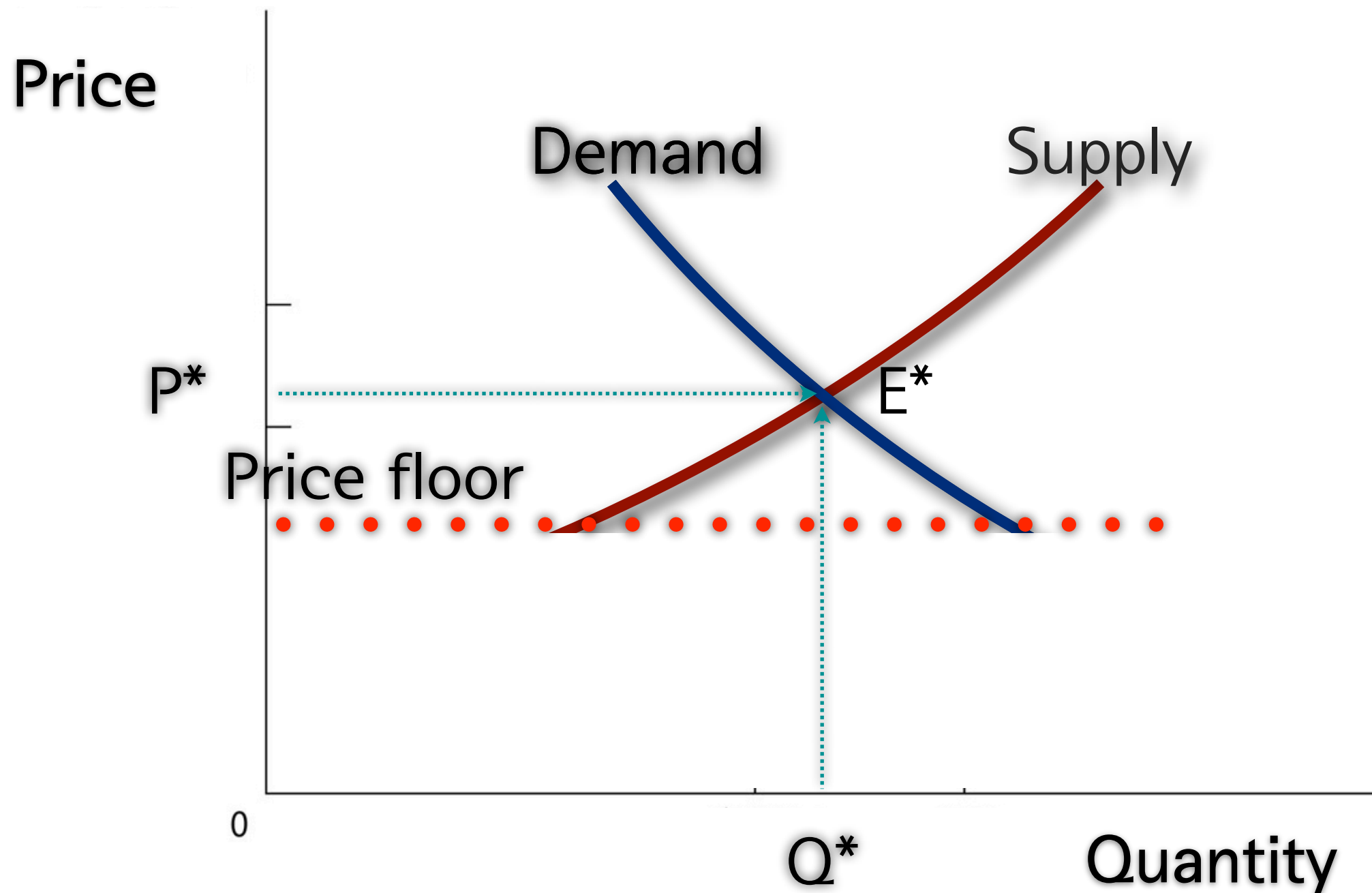
# 가격하한제가 유효한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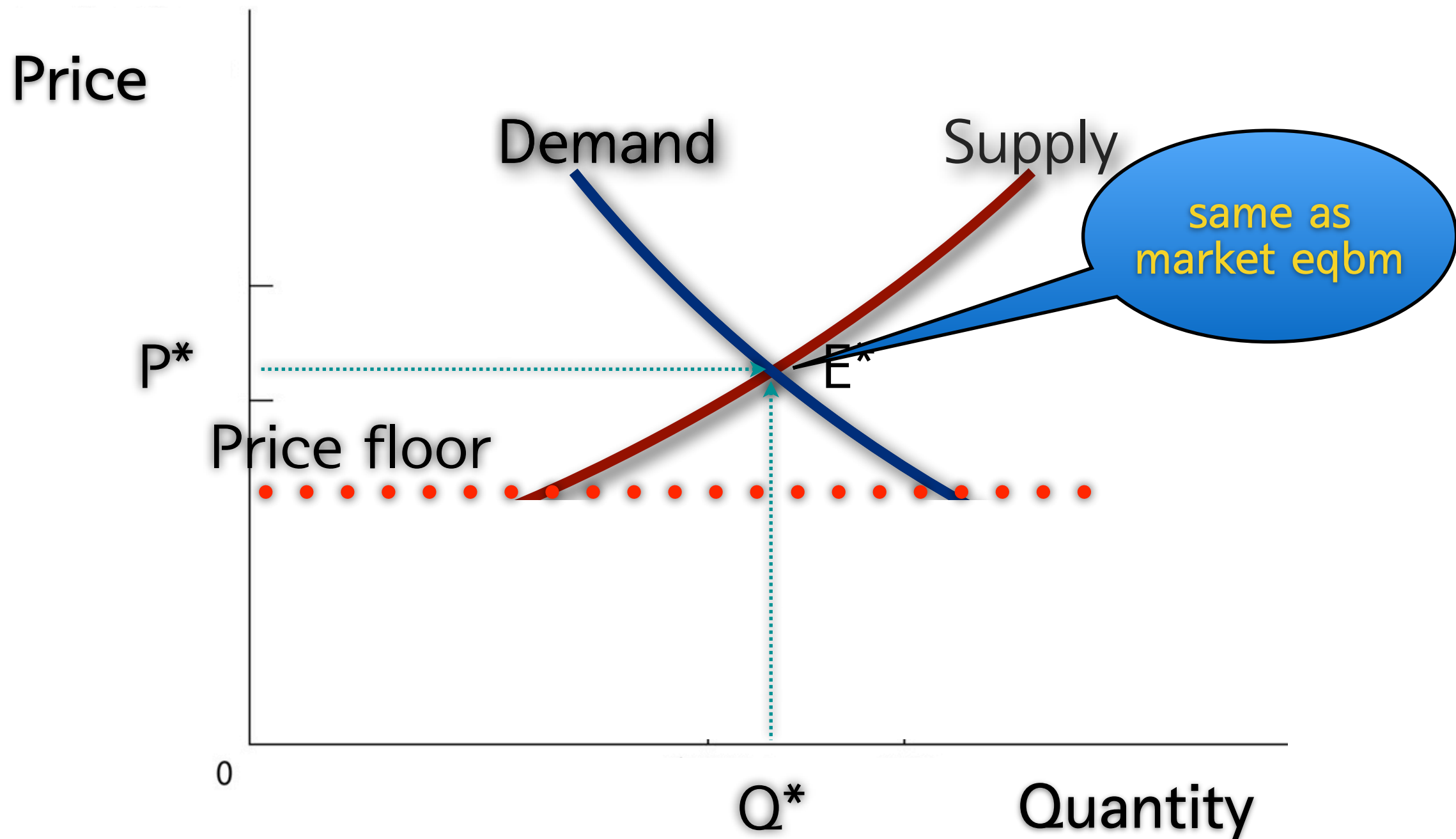
# 가격하한제가 유효한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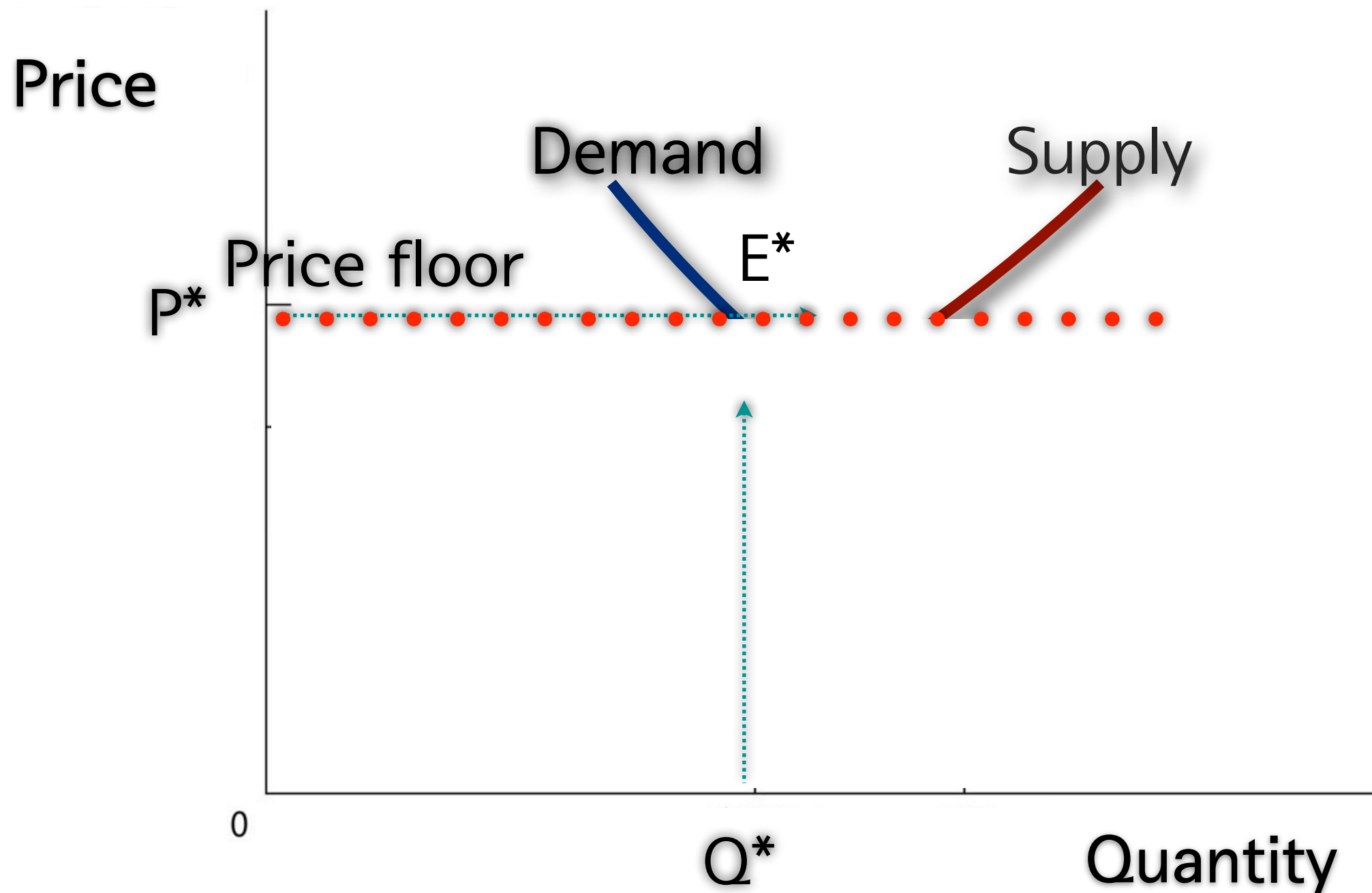
# 가격하한제가 유효한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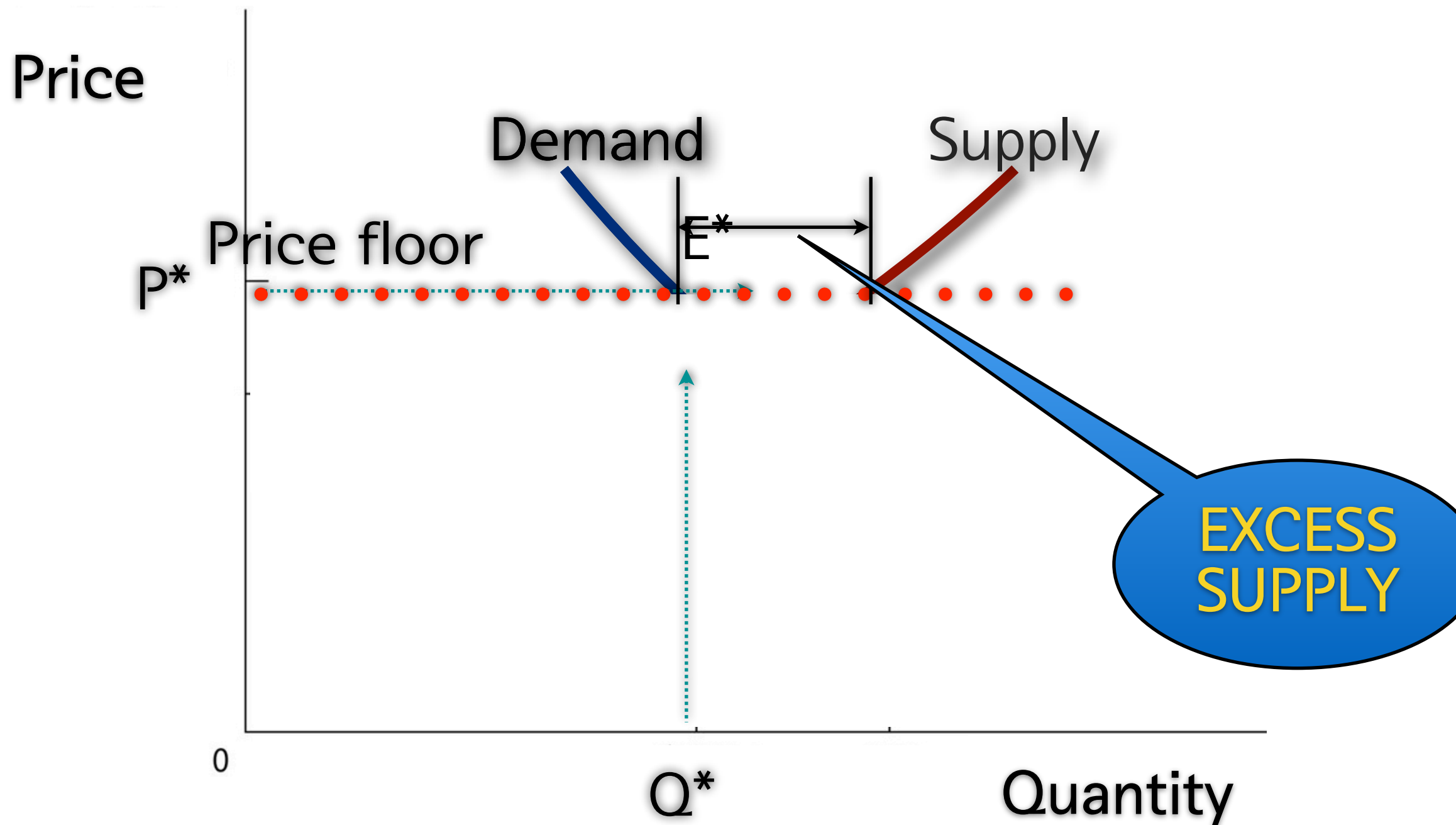
# 가격하한제가 유효한 경우



# 가격하한제가 유효한 경우



# 가격하한제가 유효한 경우



# 최저임금론의 평가

## Minimum Wage: Conclusion

- 특정 직종에서 시장균형이 최저임금수준보다 아래에 형성되어 있을 때 노동력의 초과공급이 발생
- 최저임금의 영향은 보편적이지 않음
  - 최저임금 변화로 영향받는 노동자의 비중은 20% 수준 (한국 2018)
  - 미국은 1% 이하
-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문의 실업을 설명하지 못함

# 노동조합 Labor Union

- 임금협상 결과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된 경우도 최저임금과 같은 효과 발생
  - 공급측 협상력의 강화
- 장기계약으로 인해 균형고용량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용
- 노동조합 조직률은 10% (한국 2016), 11% (미국 2013) → 제한된 설명력



# 효율임금 Efficiency Wage

- 생산성 향상, 이직 방지 등을 위해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설정하는 경우
- 효율임금가설:  
“준 만큼 일한다” ≠ “일한 만큼 준다”
- 비대칭 정보에 기반
  - 이직정보량: 노동자 > 고용주
- 효율임금 > 시장균형임금 ➡ 구조적실업발생
- 실증분석 결과 임금격차의 대부분은 효율임금이 아니라 생산성 차이

# 임금경직성과 구조적실업

- 임금의 하방경직성
-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극도로 기피함
- 이는 기업들이 임금 삭감 대신 해고를 유도하게 됨
- 그 결과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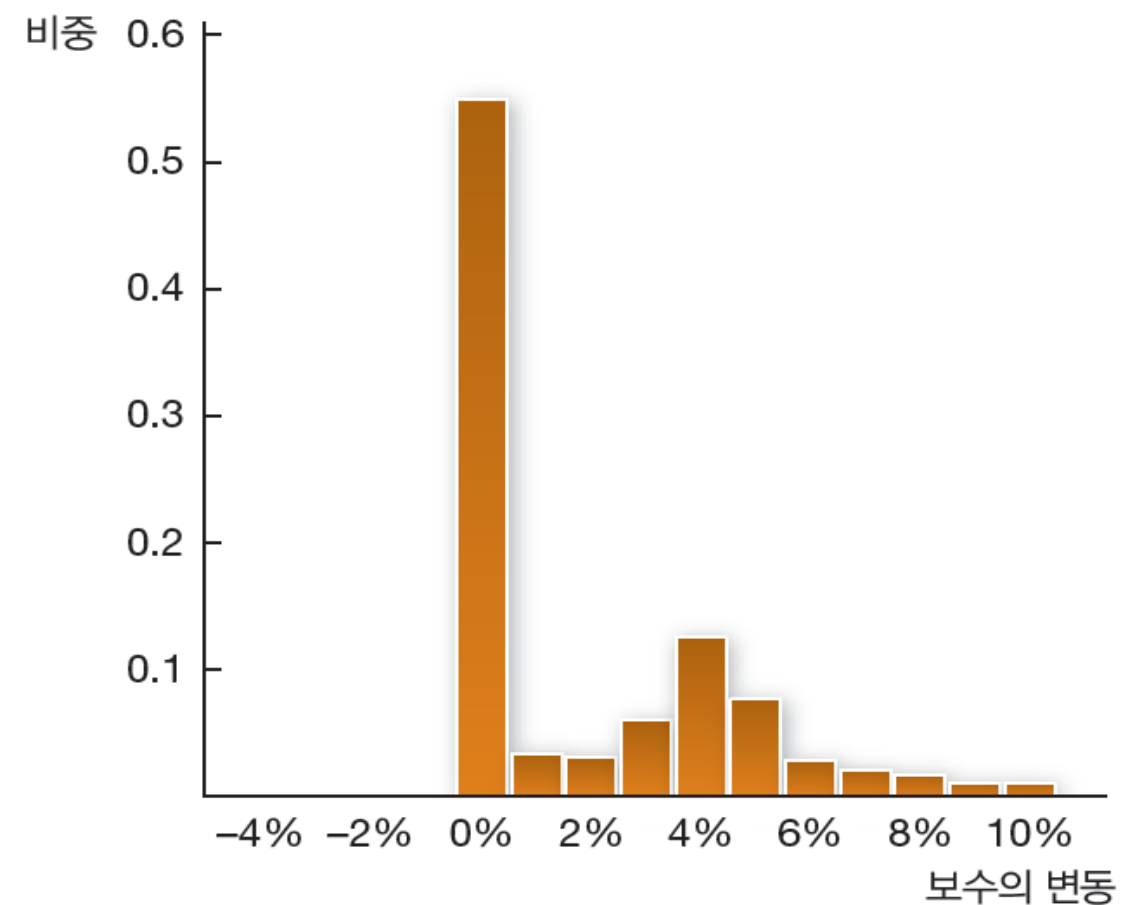


도표 23.10 한 대기업의 2008년 임금 증가 분포

# 임금경직성과 구조적실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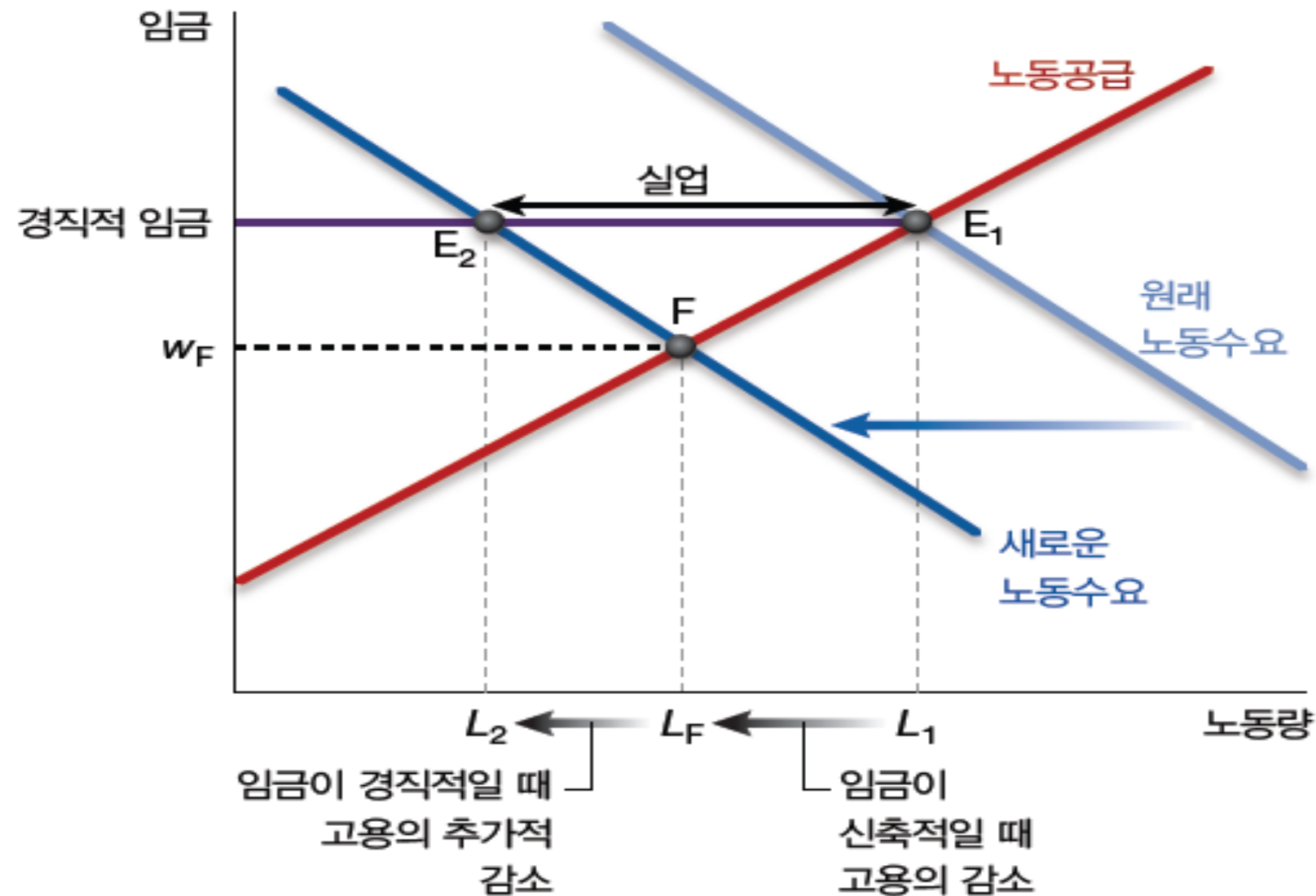


도표 23.9 노동수요의 이동이 노동시장의 균형에 끼치는 영향

# 경기적실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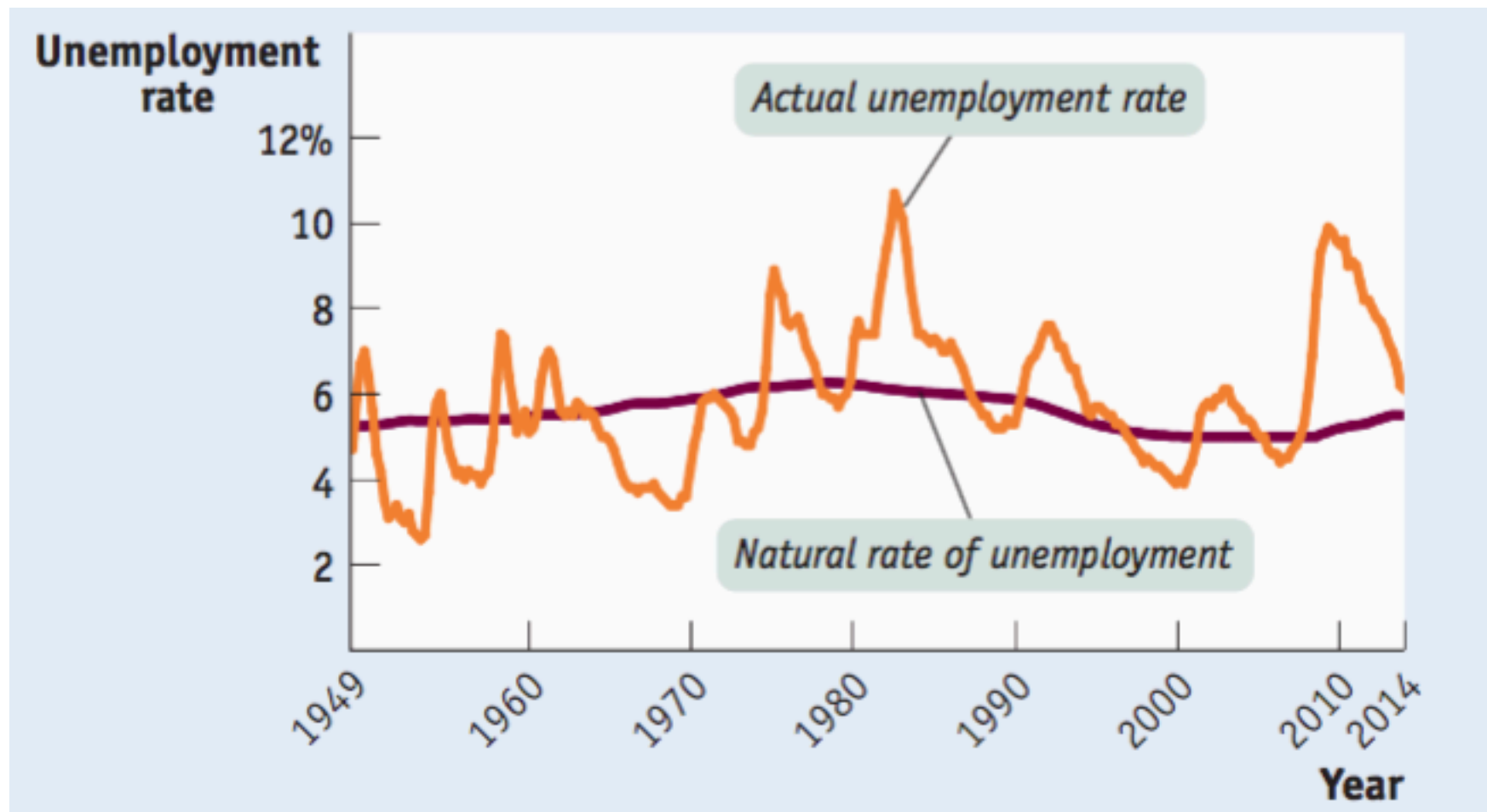
## Cyclical Unemployment

-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은 경기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
-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을 의미

# 자연실업률, 경기적 실업 Natural Unemployment Rate and Cyclical Unemployment

- 마찰적 실업, 구조적 실업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발생
- 자연실업: 경기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실업률( $:=$  마찰적실업률 + 구조적실업률)

# Natural Rate of Unemployment: US 1949-2014



# Next Topic

- 신용시장

# 수고하셨습니다!





# 수고하셨습니다!

